

大麻의 부위별 효능에 대한 고찰

¹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學科 大學院生 · ²江原道 洪川郡 保健所 公衆保健韓醫師
林錫賢^{1,2}·丁彰炫³·白裕相^{3*}

A Study on The Efficacy of Cannabis Sativa According to Different Parts

Lim Seok-hyeon^{1,2}·Jeong Chang-hyun³·Baik Yousang^{3*}

¹Student at Graduate School,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ublic health doctor of Korean medicine, Hongcheon-gun Community Health Center,
Gangwon-do

³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icacy and application of Cannabis according to its parts.

Methods : Contents on efficacy, treatment, and application of Cannabis in Material Medica and other texts of East Asian Medicine were collected and interpreted to deduce each characteristic.

Results : Cannabis was foun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wind symptoms and wind stroke, various pain and injuries, skin diseases, blockage or leaking of urine or feces, disease related to genitalia and anus, chronic ague, women's disease related to menstruation, birth, pregnancy, and to have the effects of heightening perceptive and sensory organs, detoxification and anesthesia, stimulating hair growth, and eradicating parasites. It drives out wind-heat pathogenic qi, circulates qi and blood, which allowed it to be applied not only to blockages but to symptoms of leakage. In other words, Cannabis was used when both excess and deficiency diseases were present, the former caused by acute blockage and the latter accompanied by stagnat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es on the efficacy and application of Cannabis could be done more systematically. In line with recent trend of wide application of medical Cannabis, we hope for it to be more actively used in the field of East Asian Medicin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Key words : Cannabis, Inflorescences, Folium, Radix, Fructus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May 9, 2023), Revised(May 16, 2023), Accepted(May 16,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최근 의료용 大麻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법으로 大麻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大麻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大麻는 특유의 환각 및 중독 작용 때문에 규제 대상이므로, 복잡한 절차와 제한들이 연구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 大麻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미래에 각국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에서도 의료용 大麻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大麻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통의학에서 大麻를 사용하였던 각종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

大麻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¹⁾와 일부 한의학적 활용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²⁾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大麻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기원 연구 및 고증에 대해서는邢俊波 등이 大麻의 역사적으로 활용되고 전파된 내용을 고찰하였고³⁾, 특허 및 연구전략 분야에 대해서는常麗 등이 체계적인 고찰을 시행하였으며⁴⁾, 大麻에 대한 산업화 연구⁵⁾ 및 종설연구로는張喬會 등의 연구⁶⁾가 있었다. 의학적 활용에 있어서 大麻의 효과와 기전에

대해서는祝慶明 등의 연구⁷⁾가 있었으며, 특히 麻子仁과 脾約證 또는 炙甘草湯의 관계에 대한 연구⁸⁾가 많았다. 이와 같이 최근 의료용 大麻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본초서 및 기타 문헌에 나타난 大麻의 각 부분에 대한 한의학적 효능 및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大麻를 약용으로 활용하는 꽃·씨·잎·뿌리 등의 각 부분에 대한 효능과 적응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에서 효능·주치, 병인·병기 및 병증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각각의 특징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大麻 전체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역대 주요 본초서의 설명을 검토하고 나서, 大麻의 각 부분을 사용한 활용례를 모아서 분류하고 그 기전과 적응증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1) 유요안, 전용일, 배정생. 주요 국가의 대마합법화 동향과 국내 시사점. 東北亞法研究. 2022. 15(3). pp.655-686.

2) 한경선, 이명중, 김호준. 의료용 대마의 이해 및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대마의 치료적, 학술적 필요성 제고. 한방비만학회지. 2016. 16(2). pp.124-132.

3)邢俊波 外 3人 共譯. 大麻花葉本草考證. 綠色科技. 2020. (7). pp.91-95.

白雲俊 外 3人 共譯. 藥用大麻起源及其早期傳播. 中草藥. 2019. 50(20). pp.5071-5079.

4)常麗 外 8人 共譯. 基於專利分析的大麻研發態勢及技術構成. 生物技術通報. 2018. 34(12). pp.195-201.

李秋實, 孟瑩, 陳士林. 藥用大麻種質資源分類與研究策略. 中國中藥雜誌. 2019. 44(20). pp.4309-4316.

5)於宛彤 外 5人 共譯. 藥用大麻活性成分產品開發及育種研究進展. 中國實驗方劑學雜誌. 2023. 29(3). pp.213-222.

6)張喬會 外 3人 共譯. 火麻仁研究概述. 湖北農業科學. 2019. 58(21). pp.10-14.

張漢文 外 3人 共譯. 基於中藥配伍的火麻仁藥理作用研究進展. 中國醫院藥學雜誌. 2022. 42(6). pp.659-664.

7)祝慶明 外 5人 共譯. 《神農本草經》藥物解讀-麻子.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7. 15(23). pp.75-77.

王秋月, 盧芳, 劉樹民. 大麻及大麻素藥用價值的現代研究進展. 中藥藥理與臨床. 2020. 36(4). pp.222-227.

張明發 外 3人 共譯. 火麻仁的消化系統藥理研究. 藥學實踐雜誌. 1997. 15(5). pp.267-269.

張明發 外 3人 共譯. 火麻仁的鎮痛抗炎抗血栓形成作用研究. 基層中藥雜誌. 1999. 13(1). pp.13-15.

周路紅, 王蓓, 張曉薇. 繼承與創新: 麻仁潤腸茶的研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22. 20(19). pp.91-93.

張世鵬 外 6人 共譯. 火麻仁化學成分研究. 沈陽藥科大學學報. 2023. 40(4). pp.413-421.

陳修原. 火麻仁無補虛之功. 江西中醫藥. 1988. (4). pp.43-44.

8)申永和. 麻子仁丸應用四則. 中國民間療法. 2002. 10(10). pp.42-43.

肖相如. 脾約不是麻子仁丸證. 河南中醫. 2009. 29(11). pp.1044-1045.

朱文翔 外 6人 共譯. 麻子仁丸病機及方證探析. 環球中醫藥. 2017. 10(8). pp.1008-1010.

朱文翔 外 8人 共譯. 芻議太陽陽明脾約及麻子仁丸三者的聯系. 中華中醫藥雜誌. 2017. 32(9). pp.3925-3927.

史仁傑. 脾約證及麻仁丸考析. 江蘇中醫藥. 2008. 40(5). pp.12-14.

郭麗 外 3人 共譯. 論炙甘草湯中麻仁. 四川中醫. 2015. 33(6). pp.32-34.

陳銳張平. 炙甘草湯中麻仁的研究進展. 中國社區醫師. 2004. 6(7). pp.73-74.

謝素素. 炙甘草湯方“麻仁”析. 遼寧中醫雜誌. 2011. 38(11). pp.2196-2197.

譚歌, 呂翠霞. 炙甘草湯“麻仁”之我見.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18. 34(2). pp.240-242.

이스는 ‘한의학고전DB’와 ‘youl9)’을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원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석이나 원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Chinese Text Project’ 등의 기타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바르게 수정하였다. 원문을 찾기 위한 검색어로는 大麻의 각 부위인 麻花, 麻勃, 麻蕒, 麻蕒, 麻葉, 麻根, 麻子, 麻仁 등으로 검색 하였다.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麻花는 한의학고전 DB 56건과 youl 105건, 麻勃은 한의학고전 DB 39건과 youl 81건, 麻蕒은 한의학고전 DB 19건과 youl 3건, 麻蕒으로 youl 5건이 검색되었다. 麻葉으로 검색하여 한의학고전 DB에서 127건과 youl에서 229건, 麻根으로 검색하여 한의학고전 DB 122건과 youl 323건, 마지막으로 한의학고전DB에서 麻子와 麻仁으로 검색하여 각각 2354건, 739건이 검색되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색 결과 중 苧麻, 蕁麻, 蓖麻, 胡麻, 芝麻, 黃麻 등과 같이 그 대상이 大麻가 아닌 것은 제외하였다¹⁰⁾. 또한 원문을 발췌할 때 중복된 내용은 배제하였다. 중복 제거 원칙은 간행 연도가 앞선 것을 주로 남겨두고 간행 연도가 늦은 것을 배제하였지만, 간행 연도가 늦은 것이라도 내용이 더 유의미하다면 남겨두고 연도가 앞선 내용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조법이나 복용법 및 조리법 등의 설명이 번잡한 경우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大麻의 각 부분별로 효능의 기전에 따라 연관성 높은 것끼리 모아서 분류하였고, 이후 大麻를 단독 혹은 복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시 적응증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大麻의 기전과 적응증을 고찰하면서 현대적 연구 결과와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유효성분의 함유량을 바탕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각 부위별로 大麻를 사용하는 적응증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료용 大麻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大麻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연구와 임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論

1. 大麻의 개요

삼으로도 불리는 大麻는 삼과(大麻科 : Cannabinaceae)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다¹¹⁾. 학명은 Cannabis Sativa Linne이며, 이명은 火麻라고도 한다¹²⁾. 진정 및 환각 효과가 강한 마약성 식물이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배 및 취급에 규제를 하고 있다.

大麻의 대표적인 유효성분을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라고 하며, 부위별 카나비노이드의 평균 함유량은 건조중량 대비 꽃에서 약 15.90%, 잎에서 약 2.17%정도이며, 뿌리와 씨에서는 0.03% 이하로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고 한다¹³⁾¹⁴⁾.

카나비노이드는 크게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대마초에서 연상되는 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분은 THC로, THC는 환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효과가 있어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성분이다. 반면 CBD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¹⁵⁾. 따라서 의료 및 산업용으로 쓰는

11) 손효용, 김문녀, 김영민. 대마 생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생명과학회지. 2021. 31(7). p.677

12) 新文豊出版公司 編. 김창민 外譯. 完譯 中藥大辭典(10).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p. 6377-6381

13) Jin D. et al. Identification of Chemotypic Markers in Three Chemotype Categories of Cannabis Using Secondary Metabolites Profiled in Inflorescences, Leaves, Stem Bark, and Roots. Frontier in Plant Science. 2021 .12. Supplementary Material pp.1-3

14) Krüger M, van Eeden T, Beswa D. Cannabis sativa Cannabinoids as Functional Ingredients in Snack Foods—Historical and Developmental Aspects. Plants. 2022. 11(23). 3330-p2.

15) 위키백과. 2001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A7%88%EC%B4%88>

9) 개인이 운영하는 한의학 원문 DB로, 총 631개의 달하는 방대한 의서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로 한국의 의서들을 다루는 한의학고전DB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10) 바이두 백과(百度百科)에서 검색하여 해당 명칭이 지칭하는 식물의 학명이 Cannabis가 아닌 것들을 제외하였다. 반면 春麻, 秋麻, 冬麻, 火麻 등은 大麻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

大麻는 CBD는 풍부하며, THC는 0.3%미만으로 거의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¹⁶⁾.

大麻의 種이 과거에는 크게 Sativa와 indica의 두 종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웅이주에 풍매화라는 大麻의 특성상 유전자의 자연적인 교잡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 Sativa와 indica의 차이점이 없어졌고, 학문적으로는 모두 Sativa의 아종이며 현재 약 600여종 이상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한다¹⁷⁾¹⁸⁾. 이렇게 많은 변종으로 인해 THC와 CBD의 비율은 아종마다 제각각이기에 THC와 CBD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⁹⁾.

사용이 가능한 大麻의 부위는 꽃, 열매, 씨, 잎, 뿌리, 줄기 등으로 구분이 되며, 줄기는 주로 직물을 짜는데 사용되었다. 줄기를 제외한 부위는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의서에서 언급되는 약재로 쓰는 부위는 명칭에 따라 麻花, 麻勃, 麻蕒, 麻葉, 麻根, 麻子, 麻仁, 麻子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麻花, 麻勃, 麻蕒의 사용 부위

麻花, 麻勃, 麻蕒은 본초서에서 사용 부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神農本草經』에서는 麻蕒이 麻勃이라 하였고 麻勃을 麻花라고 하면서도 麻勃을 麻花上勃勃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麻勃과 麻花에 구별을 두었는데²⁰⁾, 이후 麻勃, 麻蕒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논쟁이 있었다. 『鄉藥集成方』과 『東

醫寶鑑』에서는 麻蕒을 麻花上粉²¹⁾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本草綱目』에서는 麻蕒을 麻子로 보고 꽃이 아니라는 의견과²²⁾ 麻蕒, 麻子, 麻花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麻蕒과 麻子が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²³⁾, 역대 논쟁을 종합하여 麻勃은 꽃이고, 麻蕒은 열매이고, 麻仁은 열매 속의 씨라고 결론을 지었다²⁴⁾. 麻子が 씨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麻花와 麻勃 및 麻蕒의 관계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大麻 전초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大麻는 雌雄異株로 암그루와 수그루가 구분되어 꽃이 따로 피게 된다. 大麻의 암꽃은 식물체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여 꽃잎이 따로 없고 苞葉에 쌓여있으면서 암술을 드리운 꽃봉오리들이 모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²⁵⁾. 따라서 열매라고 불리는 것은 이 봉오리들이 受粉 되어서 성숙하는 것이다.

따라서 麻花는 암꽃 그 자체이며, 麻勃은 受粉이 됐을 때 암꽃 위에서 볼록히 올라오며 영글어가는 이삭이므로 신농본초경에서 麻花上勃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麻蕒에서 蕒은 사전적으로 삼의 씨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전에서 麻蕒을 어린 이삭이라고 하였다²⁶⁾. 결국 꽃[麻花]에서 시작해서 受

16) 李秋實, 孟瑩, 陳士林. 藥用大麻種質資源分類與研究策略. 中國中藥雜誌. 2019. 44(20). pp.4309-4316.

17) 손호용, 김문녀, 김영민. 대마 생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생명과학회지. 2021. 31(7). p.677

18) McPartland JM, Small E. A classification of endangered high-THC cannabis (Cannabis sativa subsp. indica) domesticates and their wild relatives. PhytoKeys. 2020. 144. pp81-112.

19) Jin D. et al. Identification of Chemotypic Markers in Three Chemotype Categories of Cannabis Using Secondary Metabolites Profiled in Inflorescences, Leaves, Stem Bark, and Roots. Frontier in Plant Science. 2021. 12. pp.1-12.

20) youl. 2003.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youl.net/data/ “麻蕒 … 一名麻勃. … 麻勃, 一名花. 《名醫》曰: 麻勃, 此麻花上勃勃者. 七月七日採, 良.”(神農本草經·卷一上經·麻蕒)

21) 한의학교전DB. 2016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s://medicclassics.kr/ “麻蕒(麻花上粉)”(鄉藥集成方·本草 米穀部 上品)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蕒(삼쫓우허누른ㄱㄹ)”(東醫寶鑑·湯液篇 穀部)

2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恭曰: 卽麻實, 非花也. 《爾雅》云, 蕒, 泉實. 《儀禮》云, 苴, 麻之有蕒者. 注云, 有子之麻爲苴. 皆謂子也. 陶以蕒爲麻勃, 謂勃勃然如花者, 復重出麻子, 誤矣. 旣以蕒爲米穀上品, 花豈堪食乎?”(本草綱目·穀之一·麻麥稻類十二種·大麻)

2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蘇頌謂蕒·子·花爲三物.”(本草綱目·穀之一麻麥稻類十二種·大麻)

2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據此說則麻勃是花, 麻蕒是實, 麻仁是實中仁也.”(本草綱目·穀之一麻麥稻類十二種·大麻)

25) Upton, R. et al . Cannabis inflorescence: cannabis spp.; standards of identity,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 2014. pp.10-11.

26) 新文豐出版公司 編. 김창민 外譯. 完譯 中藥大辭典(3).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p.1530.

粉이 되면 생기는 이삭을 麻勃 혹은 麻蕒으로 부르게 된 것이며 이 이삭이 성숙되면 열매를 형성하고 그 속에 있는 씨를 麻子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麻花, 麻蕒의 구별은 같은 부위에 위치하면서, 채취 시기에 따라 달리 불러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의서의 내용 가운데 麻花가 사용된 경우들의 채취 시기를 확인해본 결과 그 시기는 대략 七月七日 경으로 麻蕒, 麻勃의 채취시기와 일치하였다. 또한 암컷의 꽃은 受粉되면 THC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므로²⁷⁾, 독성이 줄어들게 되어 복용하기에 적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꽃이 피어 있는 기간에 채취하기 보다 이삭이 피기 전 후에 채취하는 것이 안전하여 약으로써 적합하므로 麻花, 麻勃, 麻蕒 등의 異名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麻花, 麻勃, 麻蕒은 형태학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초 최상부의 꽃이 있는 동일한 위치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채취하여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 얻어지는 수확물은 꽃의 독성이 상당 부분 줄어든 수분된 이삭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麻花, 麻勃, 麻蕒을 麻花로 통칭하고자 한다.

2) 麻子の 껍질 사용 유무 및 異名

大麻의 씨는 껍질과 속살로 구성되는데, 껍질에는 꽃과 이삭에서 유래한 풍부한 THC가 남아 있을 수 있어²⁸⁾ 중독성을 띄게 된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은 生麻子라고 하여 처방으로 사용한 것은 오직 하나가 존재하였는데, 丸으로 만들어서 복용하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⁹⁾. 환각의 작용을 귀신을

보는 것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心痞가 온다고 하였고³⁰⁾, 心歡하게 한다는 점에서³¹⁾ 껍질은 心神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복용하면 환각을 보거나心に 무리가 와서 心痞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제거한 麻子仁을 약으로 쓴다. 고서에도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³²⁾. 하지만 고서에서 麻子를 쓸 때 모두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었으며 포제법들도 다소 차이를 보여서, 포제법에 따라 껍질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THC 성분의 화학적 특징을 알아보면, THC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낮으나 지질 및 알콜에서 용해도는 높으며 증발하는 온도는 약 157도이다³³⁾. 따라서 生麻子를 기름으로 짜내거나 술에 담그는 경우 THC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름으로 짜내거나 술에 담그기 전에 볶는 경우가 많았는데, 볶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170도 이상이므로 향이 날 때까지 혹은 검게 될 때까지 볶거나, 복용 전에 물로 추출하여 마시면 THC성분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고서에서 포제법과 제조법을 검토한 결과, 껍질을 제거한다는 표현은 있으나 껍질은 남겨두거나 사용한다는 표현은 없었으며, 껍질 제거의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는 것들은 위와 같은 THC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대부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성을 중화하는 다른 포제법으로는 麻子를 닭에게 먹이고 똥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一切風과 靑盲內障에 아주 적은 횟수로 사용하였다³⁴⁾.

27) Carni Lipson Feder. et al. Fertilization Following Pollination Predominantly Decreases Phytocannabinoids Accumulation and Alters the Accumulation of Terpenoids in Cannabis Inflorescences. *Frontiers in Plant Science*. 2021. vol 12. pp.1-11.

28) Yang Y, et al. Cannabis sativa (Hemp) Seeds, Δ 9-Tetrahydrocannabinol, and Potential Overdose. *Cannabis Cannabinoid Res*. 2017. 2(1). p.275.

2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要見鬼者, 取生麻子·菖蒲·鬼臼等分, 杵丸彈子大. 每朝向日服一丸. 滿百日即見鬼也.”(本草綱目·穀之一·大麻)

3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柏子仁, 大麻子, 益智, 草果之類, 不去皮則令人心痞.”(東醫寶鑑·湯液篇·湯液序例·修製法)

31) youl. 2003. [상동] : “麻子去風, 令人心歡, 壓爲油, 可以油而有毒”(證類本草·卷第二十四·麻)

3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仁難去殼. 取帛包置沸湯中, 浸至冷出之, 垂井中一夜, 勿令着水. 次日日中曝乾, 就新瓦上揆去殼, 簸揚取仁, 粒粒皆完.”(本草精華·穀部·麻麥類·麻子)

33) 위키백과. 2001 [상동] : Available from: URL: <https://en.wikipedia.org/wiki/Tetrahydrocannabinol>

3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烏鷄糞 雌者以大麻子餵籠七日後取糞一兩.”(太平聖惠方·治一切風通用浸酒藥諸方)

반면 포제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고 麻子汁을 사용하는 것은 껍질 성분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麻子로 汁을 취하는 것은 물론 추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THC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THC는 마취효과가 있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껍질 성분을 썼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생명이 위급증상에 大麻를 활용한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大麻의 활용례에서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뱀에게 물렸을 때, 破傷風, 심한 골절, 심한 背腫·腦腫, 蠱毒, 독화살, 射罔이라고 할 수 있다.

살무사나 긴뱀에게 물렸을 때, 生麻葉과 楮葉을 찢어서 즙을 내거나³⁵⁾ 물에서 주물러 즙을 짜서 찌꺼기를 버리고 담갔다³⁶⁾. 과상풍³⁷⁾과 팔의 골절³⁸⁾로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에 麻根과 葉을 찢어서 즙을 내었다. 죽을 수도 있는 심한 背腫·腦腫에는 麻子를 가루로 만들어 식초를 섞고 볶아서 붙였다³⁹⁾. 蠱毒에 生麻子汁을 사용하였고⁴⁰⁾, 射罔毒⁴¹⁾과 독화살에 맞아 煩亂하고 기절할 것 같은 경우⁴²⁾

에도 麻子汁을 사용하였다. 위급한 병증에서 大麻는 麻葉과 麻子가 사용 되었는데, 심한 背腫·腦腫에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즙을 사용하였다. 극심한 통증 자체에는 잎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옹종이나 解毒의 경우는 麻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서에서 麻子를 쓸 때 生麻子를 사용하여 환을 만들어 귀신을 보게 하는 처방 외에는 껍질 성분이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효능을 연구함에 있어서 麻子和 麻子仁을 구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麻子는 과종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春麻子, 秋麻子등으로 불리는데, 春麻子是 초봄에 과종한 것으로 작고 독이 있으며, 秋麻子是 늦봄에 과종한 것으로 약에 넣으면 좋다고 하였다⁴³⁾. 반면 冬麻子의 수확시기는 9월⁴⁴⁾로 일반적인 麻子和 같은 과종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더 늦은 시기에 과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大麻의 부위별 본초서 설명

본초서에서 등장하는 大麻의 부위별 설명을 원문을 토대로 직접 해석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麻花

氣味는 辛平하며 효능 및 주치는 五勞七傷을 다스려 오장을 이롭게 하고, 下血과 寒氣를 치료하며 많이 먹으면 귀신을 보고 미쳐 날뛰게 한다고 하였고 오래 먹으면 神明에 통하며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였다⁴⁵⁾. 有毒하다고 하면서, 효능으로 破積, 止痺, 散膿이 추가되었다. 또한 처방에는 적게 쓰이며, 術家에서 인삼과 복용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

· 治風, 烏金浸酒方)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青盲內障: ... 用烏雞一只, 以米飼五日, 安淨板上, 飼以大麻子, 二三日, 收糞乾.”(本草綱目·木之三 灌木類五十一種·牡荊·荊莖·附方)
3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蝮蛇螫傷: 楮葉·麻葉合搗, 取汁漬之.”(本草綱目·木之三 灌木類五十一種·楮·葉·附方)
36)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治蝮蛇螫方 又方. 生麻葉楮葉合搗, 以水按汁, 去滓漬之.”(太平聖惠方·治蝮蛇螫諸方),
37)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治金瘡 中風, 骨痛不可忍. 大麻根葉, 無問多少, 搗絞取汁, 飲三合至四合. 無青者, 以乾者煎, 取汁飲之.”(鄉藥集成方·風門·破傷風)
3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以大麻根及葉搗取汁. 飲一升. 無生麻. 煮乾麻汁服. 亦主墜墮搗打瘀血. 心腹滿短氣.”(備急千金要方·被打第三·治腕折骨損. 痛不可忍者方)
3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意方合部·肩部部·村家救急方·癰疽發腦與背) “凡癰疽發腦與背, 至險必死. ... 麻子作末, 和醋炒付, 則快差.”
40)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又方 樹北陰白皮 桃根皮各(五兩) 蝟皮灰 亂髮灰(各一方寸七) 生麻子汁(五升).”(備急千金要方·蠱毒第四·治蠱毒方)
41)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大麻子汁.”(備急千金要方·解百藥毒第二·射罔毒)

4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治毒箭所傷, 煩亂欲絕 大麻子三升, 搗取自然汁...”(鄉藥集成方·折傷跌撲門·金瘡)
4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早春種爲春麻子. 小而有毒. 晚春種爲秋麻子, 入藥佳.”(東醫寶鑑·湯液篇·穀部·麻子)
4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冬麻子, 鄉名吐乙麻.”(鄉藥採取月令·九月採)
45) youl. 2003. [상동]: “味辛, 平. 主五勞七傷, 利五臟, 下血, 寒氣. 多食, 令人鬼兒狂走. 久服, 通神明, 輕身.”(神農本草經·卷一上經·麻黃)

였다⁴⁶⁾. 氣味는 苦, 微熱하며, 無毒하다고 하면서 120종의 惡風에서 색이 검고 몸 전체가 괴롭고 가려운 것에 모든 風과 惡血을 쫓아내며, 여인의 月經不通을 주치한다고 하였다⁴⁷⁾. 氣味가 苦, 熱하다고 하였다. 月經不通을 고르게하며, 모든 風과 瘙癢이 막기 힘든 것을 흩어버린다고 하였다⁴⁸⁾. 또한 氣味가 辛, 溫, 無毒하다고 하면서 健忘 및 金瘡內漏을 주치한다고 하였다⁴⁹⁾. 몸 속에 잠복한 風을 몰아내고 마취약으로 사용하여 癰腫을 외과 치료할 때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⁵⁰⁾.

無毒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본초서마다 毒의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麻花는 苦 또는 辛, 溫熱의 氣味를 가지고, 여러 邪氣로 인하여 막히고 울체된 것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五勞七傷 등의 허증에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 麻葉

毒이 있어 먹으면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다⁵¹⁾. 즙을 복용하면 회충을 주치하고 바르면 전갈의 독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⁵²⁾.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자라고 윤기있게 된다고 하였다⁵³⁾. 氣味가 辛, 有毒하다고 하였다⁵⁴⁾.

46) youl. 2003. [상동]: “有毒… 破積, 止痺, 散膿… 方藥亦少用, 衛家合人參服之, 令逆知未來事.”(本草經集注·果菜米穀有名無實米食部藥物·上品)

47) youl. 2003. [상동]: “麻花… 味苦 微熱 無毒. 方: 用能治一百二十種惡風, 黑色遍身苦癢, 逐諸風惡血. 主女人經候不通”(證類本草·卷第二十四·麻)

48) youl. 2003. [상동]: “麻花 味苦性熱, 堪調經水不通. 驅惡風黑色遍身, 散諸風瘙癢難抵”(本草蒙筌·卷之五谷部·火麻子)

4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辛, 溫, 無毒. … 治健忘及金瘡內漏”(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勃)

50) youl. 2003. [상동]: “麻勃治身中伏風, 同優鉢羅花爲麻藥, 砒癰腫不知痛.”(本經逢原·谷部·麻子仁)

51) youl. 2003. [상동]: “葉上有毒, 食之殺人.”(神農本草經·卷一上經·麻蕒)

52) youl. 2003. [상동]: “搗葉水絞取汁, 服五合, 主蛔蟲. 搗敷蠟毒, 效”(新修本草·卷第十九·麻)

53) youl. 2003. [상동]: “又葉沐髮, 長潤.”(證類本草·卷第二十四·麻)

5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辛, 有毒”(本草綱目·穀之一·大麻·葉)

麻葉은 辛有毒하며 주로 독성을 없애는 반면에 氣血을 소통하여 모발을 자라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었다.

3) 麻根

瘀血과 石淋을 주치한다고 하였다⁵⁵⁾. 難產과 胞衣不出에 쓰며 血과 脈이 막힌 것을 부순다. 대하와 붕루가 멈추지 않는 것을 주치한다고 하였다⁵⁶⁾. 淋을 다스리고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을 주치한다고 하였다⁵⁷⁾. 石淋을 통하게 하고 타박상의 어혈을 몰아낸다고 하였다⁵⁸⁾. 熱麻과 心腹이 그득하고 氣短한 것, 팔의 골절로 뼈가 아파 참을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⁵⁹⁾.

麻根은 주로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瘀血을 없애나 반대로 대하와 붕루를 치료하여 氣血의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4) 麻子

氣味는 甘平하며, 補中益氣하며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며, 늙지 않게 하며 신선이 된다고 하였다⁶⁰⁾. 丸藥에 더하거나 술로 빚으면 아주 좋고, 성질이 滑利하다고 하였다⁶¹⁾. 無毒하며 中風汗出을 치료하고 물을 몰아내고, 利小便하며 積血을 부수고 血脈을 돌아오게 하며, 부인의 乳房 질환과 산후의 남은 질환을 다스리며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자란다고 하였다⁶²⁾. 氣味를 微寒하다고 하였고 大小便不通을 다스

55) youl. 2003. [상동]: “麻根汁及煮飲之, 亦主瘀血、石淋”(本草經集注·果菜米穀有名無實米食部藥物·上品)

56) youl. 2003. [상동]: “根主產難胞衣不出, 破血壅脈, 帶下, 崩中不止者, 以水煮服之, 效.”(新修本草·卷第十九·麻)

57) youl. 2003. [상동]: “青麻湯淋瘀血, 主又下血不止. 麻青根一十七枚取三升, 冷, 分六服”(證類本草·卷第二十四·麻)

58) youl. 2003. [상동]: “麻根: 煮服, 更通石淋. 除難產帶下崩中, 逐折搗打瘀血.”(本草蒙筌·卷之五谷部·火麻子)

5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熱淋… 心腹滿氣短, 及踰折骨痛不可忍”(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根)

60) youl. 2003. [상동]: “味甘, 平. 主補中益氣, 肥健, 不老, 神仙.”(神農本草經·卷一上經·麻蕒)

61) youl. 2003. [상동]: “其子中仁, 合丸藥並釀酒, 大善, 而是滑利性.”(本草經集注·果菜米穀有名無實米食部藥物·上品)

62) youl. 2003. [상동]: “麻子… 無毒… 療中風汗出, 逐水,

리며 머리가 빠진 걸 나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추위를 참게 한다. 五臟의 風을 몰아내고 肺를 적셔 관절이 통하지 않는 걸 치료한다. 血脈을 통하게 하고, 氣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消渴과 배고프지 않는 처방, 기생충 없애는 방법과 귀신을 보는 법이 소개되었다⁶³). 風으로 저리고 피부에 감각이 없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부인 倒産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 大腸의 風熱結澀 및 熱淋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⁶⁴). 足太陰과 手陽明으로 들어가고 땀이 많으며 胃熱로 인해 亡津液하여 대변이 굳은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다⁶⁵). 많이 먹으면 血脈을 손상시키고 精氣를 빠져나가게 하고, 陽氣를 위축되게 한다고 하여 좋지 않게 보았다⁶⁶).

麻子は 甘平한 氣味를 가지고 氣血을 회복시키면서 한편으로 滑利한 성질을 통하여 風熱을 없애고 氣血을 소통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3. 大麻 부위별 활용례

1) 麻花

인지 능력 및 감각기관과 관련하여 우선 聾耳, 耳膿 등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귀에 膿水가 흘러 멈추지 않을 때에 白礬, 木香, 松脂, 花麩脂(紅藍花) 등의 약제와 함께 귀에 넣어 외용하였다⁶⁷)(68)(69). 또한 健忘에는 인삼과 함께 복용하는데,

利小便, 破積血, 復血脈, 乳婦產後餘疾, 長發, 可爲沐藥.”(新修本草·卷第十九·麻)

6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大小便不通, 髮落, 破血, 不飢, 能寒, 取汁煮粥, 去五臟風, 潤肺, 治關節不通, 髮落, 通血脈, 治氣, 研麻子汁, 沐發即生長. … 消渴… 至夜蟲下 … 要見鬼者”(食療本草·卷下·麻蕒)

64) youl. 2003. [상동]: “麻子, 下氣, 利小便, 去風痺皮頑. 炒令香, 搗碎, 小便浸取汁服. 婦人倒産, 吞二七枚即正. 又云: 大麻仁, 使治大腸風熱結澀及熱淋”(證類本草·卷第二十四·麻)

65) youl. 2003. [상동]: “入足太陰, 手陽明. 汗多, 胃熱, 便難, 三者皆燥濕而亡津液, 故曰脾約…”(湯液本草·草部·麻仁)

6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多食損血脈, 滑精氣, 痿腸氣. 婦人多食即發帶疾.”(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子)

67) youl. 2003. [상동]: “吳白礬(燒汁盡) 八分 麻勃(思邈按: 即大麻花) 一分 青木香 二分 松脂 四分 … 可丸如棗核, 淨拭以塞耳中, 取瘥.”(華佗神方·通耳中膿方二首)

6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聾耳, 膿水不絶, 宜用此方. 白礬 半兩 燒灰 麻勃 一分 木香 一分 松脂 一分 花麩脂

健忘뿐만 아니라 머리를 충명하게 하고 지혜를 길러서 심지어는 온 세상과 미래의 일까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⁷⁰)(71)(72)(73) 그 치료 기전은 心虛를 補한다는 것이다.

각종 風과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단독으로는 일체의 惡風에서 색이 검고 몸 전체가 저리고 뒤틀리는 증상에 사용하였으며⁷⁴) 中風에 氣虛로 땀이 날 때도 사용하였다⁷⁵). 君藥으로서 다른 일부의 약제들과 함께 사용한 경우로는, 頭面風⁷⁶)을 치료하는데 피부가 거칠고 흉격, 오장, 골수 등 몸속 깊은 곳에 잠복한 풍을 몰아낸다고 하였고, 風病으로 인한 麻木⁷⁷)에도 草烏와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많은 약제들과 함께 일체의 風冷으로 인한 병증에 사용한다고 하였다⁷⁸).

또한 胸腹痛에 新久를 막론하고 麻花 단독으로 술과 함께 복용하며⁷⁹) 배가 차고 아프며 肺病이 함

一分 右件藥, …, 滿耳填藥效.”(太平聖惠方·治聾耳諸方)

6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聾耳, 膿脂散方. 膿脂 白礬 燒灰 麻勃 竹蛙脣 以上各一分 麝香 一字… 絰在所患耳中.”(太平聖惠方·治聾耳諸方),

7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健忘益智. … 收麻勃一斤, 人參一兩, 爲末, 蒸氣遍過, 每臨臥時, 服一刀圭, 能知四方事. 或云逆知未來事.”(兩無神編·通治部·健忘門)

7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七月七日麻勃一升. 人參二兩. 末之. 蒸令氣遍. 夜欲臥. 服一刀圭. 盡知四方之事.”(備急千金要方·小腸腑·好忘·治好忘久服聰明益智方)

7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補心虛, 治健忘, 令耳目聰明 又方. 麻勃一升 取七月七日者, 人參二兩去蘆頭…”(鄉藥集成方·虛損門·健忘. 附嗜眠)

7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心昏多忘 … 又方, 七月七日, 取麻勃即大麻花一升, 人參二兩, 爲末, 蒸令氣遍, 每臨臥, 服一刀圭, 能知四方事.”(壽世秘訣·健忘)

7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勃 一百二十種惡風, 黑色遍身苦痺攣.”(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諸風·風寒風濕·穀菜)

7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勃 中風汗出.”(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諸汗·氣虛)

7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頭風方 又方. 七月七日, 麻勃三斗, 麻子一石. 末. … 百日身中澀皮八風. 曾隔五藏骨髓伏風. 百病悉去.”(備急千金要方·頭面風第八·治頭風方)

7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風病麻木: 麻花四兩, 草烏一兩, … 每服三分.”(本草綱目·穀之一·大麻)

78) youl. 2003. [상동]: “主一切風冷等萬病方: 芫花野狼毒 藥荆天雄(去皮) 五加皮麻花白芷紫苑烏頭(去皮).”(千金翼方·萬病總療萬病第·大排風散)

7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花乾末, 每一合, 和酒下.”(意方合部·胸部·三意一驗方·胸腹痛·勿論久近)

게 있을 때에도 麻蕪과 함께 복용한다⁸⁰⁾. 또한 金瘡으로 인한 內漏에는 蒲黃과 함께 복용하였다⁸¹⁾. 한편 뜸을 뜰 때 환자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으면 山茄花와 함께 麻花를 가루내어 복용하게 하여 수면상태에 빠져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마취의 작용으로 보인다.

피부 질환으로는 癩癧 초기와 鼠瘻, 일체의 瘡 및 灸瘡에 사용하였다⁸²⁾⁸³⁾⁸⁴⁾⁸⁵⁾.

모발과 관련하여 눈썹이 빠질 때 흑지마(烏麻)의 기름과 함께 발라 외용하였다⁸⁶⁾.

후음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痔疾 치료에서 痔漏, 痔瘻에 麻花를 돼지 내장에 넣고 조리하여 疳積散과 함께 복용하였고⁸⁷⁾, 여러 광물성 약들과 함께 혼증으로 외용하기도 하였다⁸⁸⁾.

학질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여 新久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발작이 일어날 때 광범위하게 쓰이며⁸⁹⁾, 특히 正氣가 虛하거나 병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溫瘧⁹⁰⁾과 勞瘧⁹¹⁾, 瘡瘻에 사용하고⁹²⁾⁹³⁾⁹⁴⁾, 腹瘡과 瘡

母⁹⁵⁾에는 무씨, 구렁이 기름과 함께 복용하였다⁹⁶⁾. 이들 학질의 공통점은 모두 학질을 오래 앓아 만성화 된 경향성을 보이며, 기력 또한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麻葉

인지능력과 감각기관 관련 질환으로는, 우선 눈의 질환인 飛絲入目에 마엽을 즙으로 내어 회충[人中虵]의 분비물과 함께 눈에 외용하였다⁹⁷⁾. 飛絲入目は 눈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통증, 충혈, 부종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⁹⁸⁾. 또한 몇 가지 약제와 함께 耳聾에 외용하는데⁹⁹⁾, 같은 방법으로 귀가 막히면서 울리는 병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¹⁰⁰⁾.

은 나지 않고 단지 열만 나는 것이 주된 증상이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07.

91) 학질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表裏가 모두 허하여져 조금만 일을 하여도 다시 발작하는 병증.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401-402.

9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八月上寅日, 採取麻花. 右搗細羅爲散, 每食前, 以溫酒調下一錢.”(太平聖惠方·治勞瘧諸方)

9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常以七月上寅日採麻花. 酒服末方寸匕.”(備急千金要方·溫瘧第六)

9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溫瘧亦治諸瘧 麻花, 七月上寅日採爲末, 酒服方寸匕, 此治溫瘧 諸瘧亦效.”(意方合部·瘧疾部·村救)

95) 오래도록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배와 옆구리에 癥癖이 나타나는 학질. 학질을 오래 앓은 뒤에 脾臟이 부어 커진 병증과 유사하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2.

9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腹瘧瘧母法. 능구렁이 … 무씨와 삼꽃 各一錢, 細末, 合蛇油作丸, 而蘿菹及麻花, 不可多入. 麻花未得, 則代以麻子可也. 此則去瘧母. 以三四歲兒, 則三丸, 七八歲兒九丸, 則去根.”(宜粟·小兒急驚·瘧疾·瘧母)

9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葉取汁, 又人中虵沈水, 待濃涎出, 一邊麻汁滴眼, 一邊人中虵汁抹之, 次以雪錦子拭目, 無不見效.”(意方合部·目部·經驗方·飛絲入目)

98) A+ 醫學百科 홈페이지

<http://www.a-hospital.com/w/%E9%A3%9E%E4%B8%9D%E5%85%A5%E7%9B%AE%E8%AF%81>

9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將松葉 麻葉 葶麻子各等分, … 薰氣取汗爲度.(四醫經驗方·耳部·耳聾)

10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耳塞而鳴, 腎經病也. 松葉 麻葉 皮麻子葉 合搗, 入瓶中, 堅塞瓶口, 入火中, 乘熱出

8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七月七日麻花葉採取, 九蒸九暴, 作末蜜丸如龍虎丹, 臨臥時一日一丸, …非但腹病, 百疾皆效.”(意方合部·腹部·三意·冷腹肺病)

8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七月七日麻勃一兩, 蒲黃二兩.”(備急千金要方·火瘡第四·治金瘡內漏方)

8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癩癧初起: 七月七日麻花·五月五日艾葉, 等分, 作炷, 灸之百壯. 《外臺秘要》.”(本草綱目·穀之一·大麻)

8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七月七日日未出時, 採麻花. 五月五日取艾, 等分合炷炷. 灸漏上百壯.”(千金翼方·瘡癧下·鼠瘻第二)

8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七月七日日未出時, 取麻花, 五月五日取艾, 等分合搗炷炷, 用灸瘡百壯, 神效.”(太平聖惠方·治一切瘧諸方)

8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灸漏方. … 又方 七月七日. 日未出時取麻花. 五月五日取艾. 等分. 合搗炷炷用. 灸瘡上百壯. 外臺灸瘧癧.”(備急千金要方·九漏第一)

8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眉毛脫落 眉毛脫落, 七月採麻花, 陰乾爲末, 烏麻油浸, 每夜擦之, 立生.”(宜粟·鬚髮)

87) youl. 2003. [상동] : “治痔瘡 … 又方用油麻花入在豬白腸內, … 薰平胃散服效.”(衛生易簡方·痔漏)

88) youl. 2003. [상동] : “治痔方. 煎藥: 麻花 (三錢) 蜈蚣 (一條) 水銀粉 (一錢半) 娑娑石 (二錢) 青氣礬 (二錢) 明礬 (二錢) 研細. 加血蠟, 雄黃.”(善濟方·痔漏門·諸痔)

8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瘧無問新久 麻花七月上寅日採爲末, 酒服, 方寸匕.”(鄉藥集成方·瘧病論·瘧發作無時)

90) 瘧疾의 하나. 먼저 열이 나오 나서 오한하거나 또는 오한

통증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외용하여 齒痛과 蟲齒에 사용하였다¹⁰¹⁾. 한편 뱀이나 벌, 전갈에 물린 경우 해독하기도 하는데, 살무사 등에 물렸을 때[蝮蛇螫傷, 蛇虺傷] 楮葉, 白礬 등과 함께 외용하였다¹⁰²⁾ 103). 또한 金瘡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¹⁰⁴⁾ 靑蒿와 함께 외용하여 瘀血까지 치료하였다¹⁰⁵⁾. 한편 虻蟲으로 인하여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였고¹⁰⁶⁾, 연기를 피워서 모기와 전갈을 쫓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⁷⁾¹⁰⁸⁾.

모발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사용하여 눈썹과 수염까지 잘 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¹⁰⁹⁾ 흰머리를 검게 할 때에도 사용하였다¹¹⁰⁾. 桑葉과 함께 외용하여 모발이 자라고 검은 머리가 나도록 사용하기도 하였다¹¹¹⁾¹¹²⁾. 모발은 한의학의 관점에서 血之餘로서 氣血의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精血이 부족할 때 잘 나지 않고 희게 될 수 있다.

대소변 질환 가운데 단독으로 사용하여 虛寒으로

瓶拔塞口物. 布片縛塞瓶口, 燻其氣於耳中.”(宜藥·耳病·耳塞而鳴)

- 10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齒痛 麻葉 … 蟲齒 麻葉”(宜藥·卷之三·牙齒)
- 10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蝮蛇螫方 … 又方. 生麻葉楮葉合搗 …”(太平聖惠方·治蝮蛇螫諸方),
- 10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蛇螫疼痛 … 又方 白礬(二兩研) 大麻葉(五兩剉) 蒼茸莖葉(五兩剉) …”(太平聖惠方·治蛇螫諸方)
- 10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三斤. 以水三升. 熟煮取二升半. 爲一服.”(備急千金要方·火瘡第四·治金瘡方)
- 10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石灰: 傳金瘡吐血, 定痛神品. … 或同麻葉·靑蒿搗收.”(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金鏃竹木傷·外治)
- 10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取汁, 服五合.”(鄉藥集成方·心痛·《三和子方》治虻蟲心痛)
- 10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 燒煙, 能逼蚊.”(意方合部·雜方·辟諸蟲 - 雜方·古驅蚊法)
- 10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除蝮法 … 燒麻葉於房中.”(宜藥·雜方·除蝮)
- 10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長毛髮眉鬚, … 又方, 大麻葉浸湯, 沐髮, 長潤, 令白不生.”(壽世祕訣·髮)
- 11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麻葉沐髮長潤.”(鄉藥集成方·頭病門·髮白令黑)
- 11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 桑葉 右二味. 以泔煮. 去滓. 沐髮七遍. 長六尺.”(備急千金要方·頭面風第八·鬢髮墮落令生長方)
- 11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白髮還黑方. … 婦人, 則麻葉 桑葉, 同煎, 頻沐.”(宜藥·鬢髮·白髮還黑方)

인한 冷痢에 사용하였으며¹¹³⁾, 乾薑과 함께 감작스런 물설사가 그치지 않는 증상에 사용하였고¹¹⁴⁾, 黑豆와 함께 赤痢에도 사용하였다¹¹⁵⁾. 또한 尿血이 있을 때에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¹¹⁶⁾ 같은 방법으로 학질을 검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였다¹¹⁷⁾.

前陰과 관련된 질환으로 陰門出의 증상에 목은 장[陳醬]과 함께 바른다고 하였는데¹¹⁸⁾, 이 경우 氣虛下陷으로 인하여 下垂가 일어나거나 국소적으로 충혈로 인하여 돌출된 것으로 보인다.

학질과 관련하여 寒濕이 원인이거나 계속 그치지 않을 때에 단독으로 사용하며¹¹⁹⁾¹²⁰⁾ 혹은 縮砂, 丁香, 陳皮, 木香 등과 함께 복용했는데, 이러한 약들은 공통적으로 性이 溫하며 脾를 다스린다는 특징이 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술 취한 듯 모습을 보이다가 깨어나면 병이 낫는다[其狀如醉, 醒即愈.]’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오래된 학질에 常山, 黃連 등과 함께 쓰기도 하는데¹²¹⁾ 이 때에도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기타 婦瘡에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¹²²⁾¹²³⁾

- 11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火麻葉: 冷痢白凍, 爲末, 冷水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痢·虛寒·穀糞)
- 11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 一兩 焙乾, 乾薑炮 半兩. 右爲細末, 每服二錢, 陳米飲調下, 食前.”(鄉藥集成方·諸痢門·水瀉痢·《衛生十全方》治暴水瀉不止)
- 11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赤痢及瘧疾 麻葉(炒), 黑豆(炒去皮). …”(鄉藥集成方·諸痢門·赤痢)
- 11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尿血, 麻葉蒸乾爲末, 蜜和丸梧子大 …”(宜藥·失血·尿血)
- 11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熟蒸, 乾末, 清蜜作丸, 臨臥時, …”(四醫經驗方·瘧疾部·尿血)
- 11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 陳醬, 合搗付門則入.”(意方合部·大小便部·脫肛·陰門出)
- 11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火麻葉: 炒研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瘡·寒濕·果木石部)
- 12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瘡不止: 火麻葉 … 爲末. 臨發前用茶或酒下. 移病人原睡處, 其狀如醉, 醒即愈. 又方, 火麻葉如上法爲末一兩, 加縮砂·丁香·陳皮·木香 各半兩, … 壯元氣.”(本草綱目·穀之一·大麻·葉·附方)
- 12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積年久瘡, 常山 黃連 各一兩, 酒三升漬一宿, … 發日旦服五合, 臨時再服. 熱當吐, 冷當利, 無不瘡者. 大麻葉不拘葉枯, … 臨發前, 用茶或酒下, 移病人原睡處, 其狀如醉, 醒即愈.”(兩無神編·通治部·瘡疾門)
- 12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三十介, … 朝食之, 甚好.”(宜藥·瘧疾·瘡·婦瘡)
- 12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服麻葉餅, 有效.”(意方

학질에 尿血, 赤痢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하였다(124)(125). 외감 관련 오래된 暑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126).

3) 麻根

피부질환 가운데 惡瘡과 腫痛에 羊糞과 함께 외용하였다(127)(128).

麻葉과 함께 사용하여 骨折을 치료하고(129) 金瘡으로 인한 破傷風의 骨痛에도 사용하였다(130). 腕骨이 부러져 통증이 있고, 瘀血과 함께 心腹이 그득하고 숨이 찬 경우에도 麻葉과 함께 사용하였다(131). 또한 여러 약재들과 함께 接骨약으로 외용하였으며(132), 腰背 부위에 瘀血이 있어 통증이 심할 때 외용하였고(133), 寒濕으로 손바닥이 아플 때에도 복용하였다(134).

대소변 관련 질환에서 단독으로 일반적인 小便不通(135)과 여러 淋證에서 小便이 갑자기 통하지 않을

때(136) 사용하였다. 특히 熱淋과 血淋(137)(138)(139), 石淋(140) 등에 많이 사용하였다. 小便不通과 반대로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소변을 보는 尿床에도 사용하였는데(141), 이 경우는 陽氣不足으로 膀胱과 腎氣가冷하여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기타 血尿(142)에도 사용하였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君藥의 역할을 하여 小便不通(143)과 여러 淋證들을 치료하였는데(144)(145)(146) 이 가운데에는 煩悶, 坐臥不得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血淋에서도 熱病과 傷寒으로 인한 경우(147)(148)에 사용하였으며, 老人의 淋疾(149) 및 虛損으로 인한 熱로

合部 · 瘡疾部 · 三意 · 熱瘡 · 婦瘡)

- 12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葉熟蒸, 乾末, 淸蜜作丸, 臨臥時, …”(四醫經驗方 · 瘡疾部 · 尿血)
- 12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赤痢及瘡疾 麻葉(炒), 黑豆(炒去皮)…”(鄉藥集成方 · 諸痢門 · 赤痢)
- 12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舊暑, 自生麻葉, 搗一握式, 入水二七合, 煎服.”(宜粟 · 暑 · 舊暑)
- 12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羊矢麻根燒煙斷. 膏和封. 有汗者乾傅之.”(備急千金要方 · 瘡疽第六 · 治惡瘡方)
- 12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羊糞乾, 麻根等分. …以猪脂和, 塗之.”(鄉藥集成方 · 癰疽瘡瘍門 · 一切惡瘡 · 治惡瘡腫痛)
- 129) youl. 2003. [상동]: “華佗治折骨神方 取大麻根葉, 無問多少, 搗取汁飲一小升…”(華佗神方 · 卷十五)
- 13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金瘡 中風, 骨痛不可忍 大麻根葉…”(鄉藥集成方 · 風門 · 破傷風)
- 13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以大麻根及葉搗取汁. 飲一升. 無生麻. 煮乾麻汁服. 亦主墜墮搗打瘀血. 心腹滿短氣.”(備急千金要方 · 被打第三 · 治腕折骨損. 痛不可忍者方)
- 132) youl. 2003. [상동]: “接骨散. 又外用接骨藥. 陳爛麻根(兩把) 羊耳朵(一對) 亂絲(一握, 多者更妙) …”(儒門事親 · 卷十五瘡瘍癰腫第一)
- 133) youl. 2003. [상동]: “鳳尾穴傷 腰眼痛極, 大便不通. 必定打斷鳳翅, 積血有餘, 服後方… 外用敷藥方(乳香 沒藥 紅曲 地盤蟲 麻根 五龍草 加蔥 薑 共搗爛, 用糯米飯敷)”(跌損妙方 · 脊背門第四)
- 134) youl. 2003. [상동]: “手指手掌受寒濕作痛 桂枝三錢, 真五加皮三錢, 當歸三錢, 白芷一錢, 木通二錢, 麻根二兩, 用豬前腳煮藥, 連湯食之, 即愈. 右手痛用右前腳, 左手痛用左前腳.”(驗方新編 · 卷十八手部)

- 13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與大人同. 小便不通, 麻根手握兩端折去十餘枚, 濃煎限差飲下.”(四醫經驗方 · 小兒 · 大小便不通)
- 136) youl. 2003. [상동]: “《廣利方》理諸淋小便卒不通方: 麻根(二七枚, 切)…”(醫心方 · 卷第十二 · 治諸淋方第四)
- 13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熱淋, 血淋 麻根 七枚剉, … 溫服, 不計時.”(鄉藥集成方 · 諸淋論 · 熱淋)
- 13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血淋. … 以水五升. 煮生大麻根十枚. 取二升. 頓服之. 亦治小便出血.”(備急千金要方 · 淋閉第二)
- 13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血淋, 臍腹及陰莖, 澁痛 又方 麻根 十枚…”(鄉藥集成方 · 諸淋論 · 血淋)
- 140) youl. 2003. [상동]: “治石淋方: …煮麻根飲之”(醫心方 · 卷第十二 · 治石淋方第五)
- 141) youl. 2003. [상동]: “人有於眠睡不覺尿出者, 是其稟質陰氣偏盛, 陽氣偏虛者, 則膀胱腎氣俱冷, 不能溫制於水, 則小便偏多, 或不禁而遺失. 《新錄方》治尿床方: 大麻根皮切三升…”(醫心方 · 卷第十二 · 治尿床方第二十四)
- 14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右以水二大盞, 煎麻根取一盞三分, 去滓, 每於食前.”(太平聖惠方 · 治尿血諸方)
- 14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蛤粉 半兩 麻根 半兩.”(太平聖惠方 · 治小便不通諸方)
- 14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石淋…或地膚子, 木通, 麻根, 等分, 煎湯服”(廣濟秘笈 · 雜病 · 諸淋, 莖中痛, 砂石填孔)
- 14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鬱金末 一兩 大麻根 二兩剉 葱白 一握.”(太平聖惠方 · 治卒淋澀痛諸方)
- 14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卒淋, 小便不通, 疼痛煩悶, 坐臥不得, 宜服麻根散方. 麻根 一兩, 大麻子 一兩, 子芩 一兩, 亂髮灰 半兩.”(太平聖惠方 · 治卒淋澀痛諸方)
- 14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麻根 二兩, 亂髮灰 二錢, … 頓服.”(太平聖惠方 · 治熱病小便不通諸方 · 治熱病, 小便不通, 淋瀝如血方)
- 148) youl. 2003. [상동]: “治傷寒小腸不通, 便如血淋. 血餘散方 亂發(灰二錢匕) 大麻根(切一兩) 上二味 … 攪勻食前溫服.”(聖濟總錄 · 卷第二十六 · 傷寒小便不通)
- 14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或地膚子 木通 麻根等分, 煎服.”(宜粟續編 · 諸病 · 老人淋疾)

血尿가 멈추지 않는 경우¹⁵⁰)에도 사용하였다. 淋證을 치료하는 여러 약물들과 함께 폭넓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¹).

전음 관련 질환 가운데 주로 陰縮을 치료하였는데, 厥陰經의 熱로 인하여 나타나는 남성의 囊縮과 여성의 陰戶急痛에 사용하며¹⁵², 房事를 과도하게 하여 음낭이 수축되고 얼굴이 검어지며 숨이 차고 땀이 날 때에도 사용하였다¹⁵³).

부인과 질환과 관련하여 출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¹⁵⁴¹⁵⁵) 難産의 이유로 和氣가 어지럽고 心氣가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¹⁵⁶). 産後에는 胎衣不下¹⁵⁷)에도 사용하였으며, 脾胃가 虛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六君子湯에 浮麥과 함께 加하여 사용하였다¹⁵⁸). 기타 崩漏로 下血이 멈추지 않을 때도 사용하였다¹⁵⁹).

이외에도 인후가 막히고 붓거나 이물질이 걸렸을 때에도 사용하였다¹⁶⁰¹⁶¹).

4) 麻子

감각 및 인지기관에 관련하여, 안과 질환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여 飛絲入眼의 경우에 외용하였다¹⁶²¹⁶³). 또한 君藥으로 사용하여 參目에 외용하였다¹⁶⁴). 기타 여러 약재와 함께 石膏羌活散에서 內障, 外障 등 일체 눈병을 치료하는 데에 복용하였다¹⁶⁵). 또한 귀와 관련하여 聾耳에 단독으로 외용하였고¹⁶⁶ 耳聾에도 여러 약재와 함께 외용하였다¹⁶⁷). 또한 일체 눈병을 주치하는 石膏羌活散에서 拳毛를 펴는 데에 麻子를 사용하였고¹⁶⁸), 속눈썹이 눈을 찌를 때 사용하는 撥雲散에도 麻子를 가하였다¹⁶⁹).

麻子は 辟穀方의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기운이 나며 정신이 맑아지고 늙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였고¹⁷⁰¹⁷¹¹⁷²), 辟穀方을 복용하

150)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大麻子根 三兩剉 亂髮灰 研令細 右以水二大盞, 煎麻根取一盞三分, 去滓, 每於食前, 暖一小盞, 調下髮灰一錢.”(太平聖惠方·治尿血諸方·治虛損, 膀胱有熱, 尿血不止, 宜服蒲黃圓方)

151)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諸種淋方 葵根八兩 大麻根五兩 甘草一兩 石首魚頭石三兩 通草二兩 茆根三兩 貝子五合.”(備急千金要方·淋閉第二)

15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熱入厥陰經則舌卷, 囊縮, 肝主筋, 筋遇熱灼則急, 亦其類也, 女子則陰戶急痛, 引小腹疼. 《入門》陰縮, 麻根, 不拘多少, 濃煎服, 一大盞, 神效.”(廣濟秘笈·雜病·陰縮),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小腹陰戶引, 麻根濃煎, 連服.”(單方秘要·經驗新編·前陰部·女子陰痛)

15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雖差, 誤行房事, 外腎搐縮, 面黑氣喘, 汗出, 麻根 濃煎水一大盆, 頓服, 卽差.”(宜囊·寒·犯熱湯)

154) youl. 2003. [상동] : “令易産. 大麻根三莖. 水一升. 煎取半. 頓服立産. 衣不下. 服之亦下.”(普濟方·卷三百五十七産難門·催生)

15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大麻根 二兩剉.”(太平聖惠方·妊娠預服滑胎令易産諸方)

156) youl. 2003. [상동] : “論日臨産或難. 蓋爲和氣動亂. 心氣不寧所致也. 古人有預備方法. 臨日服滑胎散. 治難産並胞衣不出方大麻根 (三本) 上一味, 以水一升, 煎取三合, 頓服之立下.”(聖濟總錄·卷第一百五十九産難門·産難)

157)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大麻根三本, ... 去滓頓服, 立下.”(鄉藥集方·産難門·催生·《婦人大全良方》治難産并胞衣不出)

158) youl. 2003. [상동] : “脾胃虛. 而産後之氣血至脾胃虛衰尤甚 ... 因食而嘔酸惡食, 六君加曲, 麥爲良. ... 氣短而汗出者, 再加浮麥, 麻根.”(張氏婦科·産後總論)

15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側柏葉 一兩微炒, 芫花

一兩 ... 大麻根 十莖.”(太平聖惠方·治婦人崩中下血不止諸方)

160) youl. 2003. [상동] : “治咽喉閉塞腫閉. 宜點. 白蘆 (七挺不者) 四字古錢 (二十文) 麻根 (一大握) 天劍根 (一握洗淨) 白蘭刺根 以水二升浸湯” (普濟方·卷六十二咽喉門·咽喉腫塞)

161) youl. 2003. [상동] : “咽喉 ... 麻根朽爛, 丸如彈子大, 將所硬物煎湯化下.”(證治準繩·雜病·第八冊七竅門下)

16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飛絲入目. 以火麻子一合...”(醫學綱目·肝膽部·目疾門·飛絲塵垢入目·雜方)

16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疼痛隱澁, 大麻子一合杵碎...”(丹谷經驗方·外形篇·眼·飛絲入眼)

16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宜囊·眼目·삼눈” “參目삼눈, 麻子俗名 열브, 初男乳煎, 候冷, 點滴, 良.”

16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久患雙目不觀光明, 遠年近日, 內外氣障, 風翳昏暗, 拳毛倒睫, 一切眼疾.”(世醫得效方·眼科·七十二證方·氣證·石膏羌活散)

166)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 汁... 並滴耳.”(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耳·聾耳·草木)

167)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松脂 三分 巴豆 一分去皮心 大麻子仁 三分 薰陸香 三分 食鹽 三分 ... 納於耳中, ...”(太平聖惠方·治耳聾諸方·治耳聾立效, 塞耳圓方)

16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 拳毛倒睫, 一切眼疾. ... 麻子 起拳毛 ...”(世醫得效方·眼科·七十二證方·氣證·石膏羌活散)

16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拳毛, 撥雲散, 加麻子五分.”(舟村新方_연인본·小兒編·眼疾)

170)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耐老益氣·久服不飢. 麻子仁二升, 大豆一升...”(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

면서 갈증이 있으면 大麻子즙을 마셔서 장부를 滋潤한다고 하였다¹⁷³). 약재는 주로黑豆와 함께 복용한 경우가 많았다. 脾가 약하여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麻子를 쓴다고 한 것¹⁷⁴)으로 보아 脾氣의 운행을 돕음으로써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많은 기운이 나게 하는 辟穀方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풍증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복용하여 癲狂¹⁷⁵), 老人의 四肢頑痺, 言語不利¹⁷⁶) 및 風痺¹⁷⁷), 產婦 및 남자의 角弓反張, 口嚔不開 등을¹⁷⁸) 치료하였다. 또한 麻子를 君藥으로 사용하여 頭風이나 깊숙이 잠복한 風을 몰아낸다고 하였으며¹⁷⁹), 中風으로 인한 老人의 言語澁悶¹⁸⁰) 또는 手足不遂, 神情冒昧¹⁸¹) 등에 사용하였다. 기타 여러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여 일체의 風¹⁸²)과 風痰으로 정신이 혼미한

附方)

- 17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黑豆 四升炒去皮 大麻子 四升熬令香, ... 十日後斷穀, 冬不寒, 夏不熱, 顏色光澤, 氣百倍, 走及奔馬.”(太平聖惠方·神仙絕穀法·治建神丹絕穀方)
- 17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令人不不飢, 耳目聰明, 顏色光澤... 黑豆 五升, 淨洗後, 蒸三次, 曬乾去皮, 大火麻子 三升... 第一頓, 七日不食, 第二頓, 七七日不食, 第三頓, 三百日不食, 容貌佳勝, 更不憔悴.”(鄉藥集成方·諸救急門·救荒辟穀)
- 17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渴即研大麻子漿飲, 更滋潤臟腑.”(鄉藥集成方·諸救急門·救荒辟穀)
- 17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壯氣潤肌... 脾弱不食, 同麻子熬香研, 日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脾胃·勞倦·菜穀)
- 17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麻子肆升, 上好者... 且空肚頓服, 或不發, 或多言語, 勿怪之, 但使人摩手足, 須臾即定, 凡進三劑不愈, 令人身輕, 邪那皆去.”(千金翼方·中風下·中風第一·治風癲狂, 及百病方)
- 17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飲 治老人 中風汗出, 四肢頑痺, 言語不利. 麻子五合... 頻作極補益.”(鄉藥集成方·風門·一切風通用方)
- 17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老人風痺: 麻子煮粥, 上法食之.”(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 17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一升熬令黑, 以酒一升淋, ... 此方兼理產婦及丈夫中風, 如角弓反張, 口嚔不開, 大驗. 與紫湯氣力同.”(備急千金要方·喉病第七)
- 17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七月七日, 麻勃三斗, 麻子一石, ... 百日身中澀皮八風, 胃膈五藏骨髓伏風, 百病悉去.”(備急千金要方·頭面風第八·治頭風方)
- 18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老人中風, 煩熱, 言語澁悶, 手足熱, 伍鷄半斤, 細切, 麻子汁五合, ... 補益.”(鄉藥集成方·風門·中風不得語·烏鷄臙)
- 18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冬麻子粥: 治中風, 五藏壅熱, 言語蹇澁, 手足不遂, 神情冒昧, 大腸澁滯...”(醫方類聚·諸風食治·聖惠方·食治中風諸方)

경우¹⁸³), 心中驚悸와 心胷에 痰이 그득한 경우¹⁸⁴)에 사용하였다. 또한 中風의 偏枯로 허리와 무릎에 疼痛이 있는 경우¹⁸⁵), 婦人中風에서 手足攣急, 頑痺不遂 등이 있는 경우¹⁸⁶), 半身不遂이면서 手足攣急 등 여러 증풍 증상이 있는 경우¹⁸⁷)¹⁸⁸) 등에 사용하였다. 기타 四肢攣急 등 증풍 관련 증상과 정신이 蒙昧한 경우¹⁸⁹)¹⁹⁰), 關節과 胝수에 疼痛이 있는 경우¹⁹¹)에도 사용하였다.

통증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사용하여 痰으로 인한 牽引痛¹⁹²), 風毒으로 骨髓痛¹⁹³), 인후가 갑자기 막히고 아픈 尸咽¹⁹⁴)¹⁹⁵)¹⁹⁶), 인후가 아프고 氣가 거슬러

- 18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一切風, 牛蒡子浸酒方.”(太平聖惠方·治一切風通用浸酒藥諸方)
- 18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風痰, 心昏恍惚, 不能言語, 痰涎流溢, 宜服秦朮散方...”(醫方類聚·諸風門四·聖惠方二·治風痰諸方)
- 18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心中驚悸而四肢緩頭面熱, 心胷痰滿, 頭目眩冒如欲搖動者, 署預湯方. ... 仍不除差者, 依此方, ...” (備急千金要方·風眩第四)
- 18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風及偏枯, 腰膝疼痛, 牛膝浸酒方” (太平聖惠方·治一切風通用浸酒藥諸方)
- 18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婦人中風偏枯, 手足攣急, 頑痺不遂, 晚蠶沙浸酒方” (太平聖惠方·治婦人中風偏枯諸方)
- 18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經驗秘方治諸風, 前監察御史兼西京留守竇文炳染風疾, 手足拘攣, 半身不遂, 累蒙恩醫不愈, 奉先縣尉李能有此方, 極效, 名曰仙酒方.”(醫方類聚·諸風門八·三因方·中風治法)
- 18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仙酒方... 大治諸中風, 半身不遂, 腰脚緩弱, 手臂攣麻, 左癱右瘓, 抽掣彈拽, 一切風熱等疾, 大效.”(醫方類聚·諸風門十一·經驗秘方)
- 18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大風, 周身四肢攣急, 風行在皮膚, 身勞僵, 服之不虛人, 又主精神蒙昧者方 秋麻子 三升伸澤水漬一宿 防風 桂心 生薑 石膏用綿裏 橘皮各二兩 麻黃三兩 竹葉一握 葱白一握 香豉一合.”(備急千金要方·偏風第四·麻子湯)
- 19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風, 利關節, 治頑麻, 除疼痛, 去攣縮, 強腰膝, 茄子根浸酒方” (太平聖惠方·治一切風通用浸酒藥諸方)
- 19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風毒攻注, 腰脚骨髓疼痛, 皮膚冷痺, 筋脈拘攣, 屈伸不得, 宜服茄子根浸酒方” (太平聖惠方·治風腰脚疼痛通用浸酒藥諸方)
- 19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牽引作痛, 麻子삼썩去角, 研取汁服.”(宜棄·痰飲·痰牽)
- 19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仁酒: 治骨髓風毒痛, 不能動者, 取大麻子中仁炒香, 袋盛浸酒飲之.”(本草綱目·穀之四·酒·附諸藥酒方)
- 194) 尸咽은 風熱毒으로 목 안이 허는 병으로 뱃속에 있는 尸蟲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올라와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¹⁹⁷⁾ 등을 치료하였다. 기타 여러 약제와 같이 사용하여 風濕으로 허리에 疼痛이 있고 坐臥不安한 경우¹⁹⁸⁾ 복용하였다.

외상과 관련하여 金瘡¹⁹⁹⁾에 사용하는데, 주로 葱白과 함께 써서 金瘡으로 인해 복부에 瘀血이 있을 경우²⁰⁰⁾나, 화살촉 혹은 대나무에 의한 손상²⁰¹⁾에 복용하여 膿血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구타로 인한 손상으로 복부에 어혈이 있어서 煩悶할 경우에 먼저 疔를 복용한 후 다시 麻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⁰²⁾. 또한 여러 약제와 함께 개에게 물린 경우²⁰³⁾에 의용하였다.

해독을 위해서 각종 毒에 麻子를 사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복용하여 독화살의 毒²⁰⁴⁾²⁰⁵⁾과 射罔²⁰⁶⁾에

의한 毒²⁰⁷⁾ 등을 치료하였고, 石藥의 毒이 上部를 공격하는 경우²⁰⁸⁾²⁰⁹⁾에도 사용하였다. 특히 毒이 뼈마디에 흘러가거나 惡瘡이 터져 고름이 나오고 콧마루가 주저앉으며 허는 증상들이 나타났²¹⁰⁾. 또한 여러 약제와 함께 사용하여 蠱毒²¹¹⁾을 치료하였다. 화살 독의 일반적인 기전은 신경독이 신속하게 근이완을 일으켜서 심장마비 및 호흡마비로 죽게 된다. 石藥은 성질이 燥熱하므로 체내에서 역시 燥熱이 발생하여 藥毒上攻과 통증 및 각종 惡瘡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蠱毒은 毒蟲에 의한 것으로 병증의 변화가 빠르고 통증이 있으며 위중한 상황까지 이른다.

피부와 질환에서는 麻子 단독으로 내복하여 小兒의 癩²¹²⁾과 腫²¹³⁾²¹⁴⁾ 그리고 懸癰²¹⁵⁾ 등에 사용하였다. 癩은 氣와 痰이 정체되어 목덜미에 혹과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며²¹⁶⁾, 痰과 膿으로 인하여 생기는 腫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中氣를 보하면서 濕邪를 운행시키는 처방을 사용한다²¹⁷⁾. 懸癰이란 입천장에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15-116.

19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尸咽, 喉中痛痒, 如得蠱毒 麻子”(鄉藥集成方·咽喉門·尸咽喉)

19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麻子仁一箇, 細嚼嚙化, 神效.”(廣濟秘笈·咽喉·急喉閉·咽喉痛)

19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咽痛. 逆氣不能食方. 麻子一升熬令黑. 以酒一升淋. 取汁. 空心一服一升. 漸至二升. 多汗好覆. 勿觸風冷.”(備急千金要方·喉病第七·針灸法二首)

19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風濕氣, 着於腰間疼痛, 坐臥不安, 宜服牛蒡浸酒方.”(太平聖惠方·治風濕腰痛諸方)

19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金瘡方 飲麻子汁數升. 小品方治毒箭所傷.”(備急千金要方·火瘡第四)

20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金瘡腹中瘀血. 二物湯方 大麻子三升, 大蔥白二十枚. ... 頓服之. 若血出不盡. 腹中有膿血. 更合服. 當吐膿血耳.”(備急千金要方·火瘡第四),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金瘡, 內漏血入腹中方 大麻子一升 葱白二七莖 ... 分爲三服, 若血出不盡, 腹中有膿血, 更令服, 當下膿血效.”(太平聖惠方·治金瘡內漏諸方)

20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葱汁. 同麻子煮服, 吐敗血.”(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金鐵竹木傷·內治)

20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疔一升. 以水三升. 煮三沸. 分再服. 不差重作. 更取麻子煮如疔法. ...”(備急千金要方·被打第三·治被毆擊損傷. 聚血腹滿煩悶方)

20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蚯蚓糞燒末 草麻子仁 麻子仁, 爛搗作餅, 付之, 以拔根爲主.”(宜象·諸傷·犬咬)

20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被箭毒, 麻子二升, 杵汁飲.”(宜象續編·諸病·被箭毒)

20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毒箭所傷, 煩亂欲絕 大麻子三升, ...”(鄉藥集成方·折傷跌撲門·金瘡)

206) 草烏, 川烏의 毒으로 화살에 발라서 사용한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47.

20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麻子汁.”(備急千金要方·解百藥毒第二·射罔毒)

20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藥毒上攻, ... 又飲大麻子汁, 良.”(兩無神編·外科·中諸毒門)

20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解諸金石毒, ... 大麻子 ... 或煎或汁服.”(瘍醫微·微瘡)

21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 往往死, 或得生牙齒脫落, 筋骨疼痛, 日久則毒流骨節, 或爲瘡癤, 或爲惡瘡破漏, 或鼻梁崩堆, 咽喉爛瘡, 聲啞目盲, 手足顛掉者, ... 解毒, 誤服金石, 致上件症者 必用 ... 大麻子 ... 或煎或汁服.”(廣濟秘笈·癰疽·天疱瘡, 孕婦難治, 小兒治法·薰藥)

21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蠱毒下血, 皆如爛肉, 令人心腹疼痛, 如有物噎, 若不即治, 蝕人五臟乃死徧, 宜服此方. 榭樹北陰白皮 四兩 桃根白皮 四兩 獾皮灰 一兩 亂髮灰 一兩 大麻子汁 五升 ... 旦服.”(太平聖惠方·治蠱毒下血諸方)

21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小兒癩初發 麻子搗爲漿, 并華水調下.”(鄉藥集成方·小兒科·小兒癩氣)

21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挾痰, 麻子去皮, 一煙竹盞式, 調酒服.”(舟村新方 筆寫本·腫)

21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破腫後, 膿汁流不生肉始發時, 麻子一握, 去殼取仁研 ...”(宜象·腫丹)

21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懸癰長垂咽中妨悶 麻子煮取汁, 常服.”(意方合部·咽喉部·救急方·咽喉纏喉風喉腫付)

21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01.

21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

생기는癰을 말한다. 麻子 단독으로 외용하여 疔瘡²¹⁸⁾, 瘡疥²¹⁹⁾, 頭瘡²²⁰⁾, 唇瘡²²¹⁾, 楊梅瘡²²²⁾, 癰疽²²³⁾, 湯火傷²²⁴⁾ 및 외부 毒²²⁵⁾²²⁶⁾으로 인한 각종瘡, 疥²²⁷⁾, 癩²²⁸⁾, 얼굴 및 사지²²⁹⁾²³⁰⁾, 허리²³¹⁾ 등의 부위에 생기는 위중하고 심한 腫腫을 치료하였다. 또한 風毒의 熱로 인하여 발생하는 丹毒도 치료하였다²³²⁾²³³⁾. 머리와 등에 생기는 위중한 腫瘡은

율.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09.

- 21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嚼麻子傅之.”(備急千金要方·小兒雜病第九·治小兒疔瘡方)
- 21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五升末之.”(備急千金要方·癰疽瘰癧第八·治小兒頭面瘡疥方)
- 22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小兒頭瘡: 麻子五升研細, 水絞汁, 和蜜敷之.”(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 22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麻子 燒灰細研, 用井華水調塗之.”(鄉藥集成方·口舌門·唇瘡·《聖惠方》治唇瘡)
- 22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楊梅瘡, 麻子十餘斗取油, 分三次, 溫湯沐浴, 則細白蟲連自出之. 二三次盡出, 爲妙.”(宜彙續編·宜彙拾遺)
- 22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癰疽著手足肩背. 忽發累累如赤豆. 剝之汁出者方 ... 又方 以麻子熬作末. 摩上良.”(備急千金要方·癰疽第六)
- 22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右取大麻子, 如常法, 煮麻腐, 稀稠得所, 以傅之, 乾即換之.”(太平聖惠方·治湯火瘡諸方·治卒被湯沃火燒, 瘡痛煩悶不止, 兼令瘡不成癩痕方)
- 22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以尿射人, 遍身生瘡狀如湯火傷, ... 嚼麻子付.”(四醫經驗方·雜病·八脚虫隱於辟間)
- 22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右嚼大麻子塗之.”(太平聖惠方·治蠅蝮尿瘡諸方·治蠅蝮尿瘡方)
- 22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凡癰疽發腦與背, 至險必死. ... 麻子作末, 和醋炒付, 則快差.”(意方合部·肩背部·村家救急方·癰疽發腦與背)
- 22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背瘡初起 ... 初發, 麻子細研, 和醋付之.”(宜彙·諸瘡·背瘡初腫)
- 22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始初, 麻子磨和醋, 付之. <舟>面腫好.”(宜彙·腫丹·背腫)
- 23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赤遊風腫, 忽然腫瘡, 不治殺人. ... 大麻子仁搗爛, 水和付之.”(宜彙·腫丹·赤遊風腫), 赤遊風이란 頭顔과 四肢의 피부가 빨강게 붓고 熱이 나며, 빛깔은 붉은색으로 질한 것 같고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옮겨다니는 것이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5.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97.
- 23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惡瘡及腰下根腫, 燈檠滓付之, 根易出, 而麻子作末, 并醋調付, 則尤好.”(宜彙·諸瘡·根腫)
- 23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搗大麻子. 水和傅之.”(備急千金要方·丹毒第四·赤流腫丹毒方)
- 23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濇麻子水和塗之.”(千

주로 消渴病의 不治證에서 나타나는 것²³⁴⁾으로 병이 위중하며, 얼굴에 생기는瘡은 風熱이 멎쳐서 위로 치받아서 발생한다²³⁵⁾. 君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熱毒과 風으로 생긴 疔瘡²³⁶⁾와 飲酒로 인해 咽喉가 문드러져 입과 혀에瘡이 생긴 경우²³⁷⁾에 사용하였다. 기타 여러 약재들과 함께 외용한 경우는, 婦人의 前陰에 생긴 瘡²³⁸⁾, 乳腫²³⁹⁾, 소아의 疔瘡²⁴⁰⁾과 湯火傷²⁴¹⁾, 瘡疥癬²⁴²⁾, 痰核腫大²⁴³⁾, 無名瘡²⁴⁴⁾, 疔²⁴⁵⁾, 背의 腫毒²⁴⁶⁾, 腦腫²⁴⁷⁾과 髮際

金翼方·瘡癰下·丹疹第五·治五色丹. 俗名油腫. 若犯者多致死. 不可輕之方) 五色丹은 소아에게 생기는 丹毒의 하나이다. 風毒의 열이 변화함에 따라 丹의 빛깔이 변화한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97.

- 234) 消渴病에서 腦腫와 背瘡가 발생하는 것을 不治證이라고 하였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67.
- 23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309.
- 23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豆緊小者, 三升, 麻子仁研細, 三升, 烏蛇一條, 去頭尾皮骨, 重四兩, 碎...”(鄉藥集成方·癰疽瘡瘍門·癰疽附 風疽, 石疽, 癰. 上高下深藏穴之義·大豆酒 治熱毒, 風腫成疽, 日夜熱痛)
- 23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飲酒咽爛, 口舌生瘡, 大麻子仁一升, 黃芩二兩, 爲末, 蜜丸服之.”(壽世秘訣·咽喉)
- 23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前陰生瘡, 白癬 麻子仁各等分, 極細末. 槐白皮煎水, 洗以瘡處, 右藥末, 猪脂調付, 神效.”(宜彙·婦人·婦人諸病·前陰生瘡)
- 23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婦人乳腫. 地龍尿, 廁下青土, 麻子, 炒搗, 等分...”(鄉藥集成方·產後門·乳癰)
- 24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小兒疔瘡, 生於身上諸處, 宜用此方 ... 以麻子膏同研合勻, 傅於瘡上.”(太平聖惠方·治小兒疔瘡諸方)
- 24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小兒卒被湯燙火燒, 苦劇, 大麻子膏方”(太平聖惠方·治小兒湯火瘡諸方)
- 24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麻子 胡麻各壹升半. 並熬令焦赤 ... 非惟治甘濕. 凡百異同瘡疥癬.”(千金翼方·瘡癰下·甘濕第六·治甘食人諸處凡是赤白癩久不瘥秘之方)
- 24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痰核腫大. 石灰, 麻子仁, 等分, 醋炒...”(若山好古腫方撮要·外科·痰核·石灰)
- 24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赤小豆, 麻子.”(鄉藥集成方·癰疽瘡瘍門·無名瘡·《肘後方》治腫偏有所起處)
- 24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拔疔膏. 麻子仁二錢, 石雄黃 石硫黃 各一錢五分, 草麻子 鷄矢白 各一錢...”(宜彙·諸瘡·拔疔膏)
- 24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背腫, 毒盛根深, 以利針刺, 破開, 外付此藥, ... 麻子皮, 刮竹刀上, 雄黃塗, 餅當瘡口...”(舟村新方 筆寫本·腫)

腫²⁴⁸), 癰疽와 腫의 초기²⁴⁹(250), 癰疽²⁵¹), 丹毒²⁵²)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외용법으로 小兒의 疳瘡²⁵³), 瘡으로 인한 蟲²⁵⁴), 風熱毒瘡²⁵⁵), 癰疽와 妬乳²⁵⁶), 月蝕瘡²⁵⁷)과 白禿²⁵⁸), 面瘡²⁵⁹) 등 각종 癰疽와 腫瘡에 病的 新舊를 막론하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다²⁶⁰). 일체의 惡瘡과 軟癰을 치료하는 神仙太乙

24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腦腫, 嚼付麻子及苦椒.”(宜彙·腫丹·腦後腫初)

24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用匏子仁嚼爛, 付之正中根處, 以苦椒一介, 垢開去子, 付于匏子上, 令椒皮在外. 日易一次, 則根隨匏子, 膿出. 凡腦腫·髮際腫, 一如上法, 但不用匏子, 用麻子, 皆神效.”(宜彙·癰疽·始生時)

24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外付三仁膏. 杏仁 麻子仁 卑麻子仁, 同搗作餅付之.”(袖珍經驗神方·男婦通治門·癰疽及諸瘡·癰疽病)

25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三仁膏. 皮麻子 麻子 杏仁 桂皮 各一錢, 蜜丸. 腫病始初, 付之.”(宜彙·腫丹·三仁膏)

25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癰疽初發神效. 草麻子取仁 麻子取仁 杏仁留皮尖.”(醫本·癰疽·隔蒜灸法·三仁膏)

25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搗末, 調醋, 兼入雞子白, 伏龍肝與鹽, 相和塗之.”(實驗單方·六十九丹毒部)

25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小兒急疔, 口鼻生瘡, 時痒不止, 宜用此方 大麻子 一升于竹筒中燒取青 蝦蟆灰 一分 麝香 一分 人糞灰 一分 鹽綠 半分 ... 以麻子膏和圓, 如綠豆大, 納入兩鼻孔口中.”(太平聖惠方·治小兒急疔諸方)

25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久瘡成蟲, 宜八物膏, 綿藿 鷄糞 牛骨 桑木骨 黃太 松孔 草麻子 麻子仁入瓶埋地, 用糠火取油塗之.”(舟村新方·연인본·大人編·腫瘡門)

25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風熱毒瘡 蒼耳子燒存性 木鱉子 杏仁 麻子二十粒, 鷄屎白炒 麵末 眞末 各二匙.”(增補單方新編·瘡瘡門)

256) 양쪽 유방이 부풀고 단단해지면 아프거나 또는 유두에瘡이 생기는 병증으로 젖이 氣血과 서로 얽혀서 생긴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09.

257) 어린아이의 귓바퀴에 생긴 瘡으로 대부분 胎毒이 깨끗이 가지지 않고 肝과 膽이 맑지 못하며, 脾經에 濕熱이 쌓여 일어난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7.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07.

258) 머리에 흰갯빛 비듬만이 생기며 머리털이 빠지는 것으로 풍風이 머리의 腠理에 침입하여 들어가 뭉쳐 흩어지지 않거나, 진염으로 일어난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87.

25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癰疽諸瘡; 王不留行湯, 治癰疽妬乳, 月蝕白禿, 及面上久瘡, 去蟲止痛. 用王不留行·東南桃枝·東引茱萸根皮各五兩, 蛇床子·牡荊子·苦竹葉·疾瘻子各三升, 大麻子一升.”(本草綱目·草之五 隔草類下七十三種·王不留行·附方)

26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消毒祕方. 蒼耳子燒存性

膏²⁶¹)에도 사용되었으며 각종 외상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제반 風癰瘻을 치료하는 赤龍丸의 가 감법으로 風瘡下疔에 火麻子를 복용하였고²⁶²), 麻子疔에 麻子 먹는 것을 금기하기도 하였다²⁶³). 麻子は瘡과 癰腫 및 丹毒 등의 피부병이 발생한 초기에 風熱이 율체됐을 때 많이 사용하며, 동시에 뿌리가 깊은 병 및 병의 후기의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털, 모발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사용하여 머리털이 빠지거나 나지 않을 때²⁶⁴)²⁶⁵) 사용하였으며, 모발 뿐만 아니라 눈썹과 수염이 나지 않을 때²⁶⁶)에도 사용하였다.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한 경우도 이 이상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탈모의 원인으로 血虛²⁶⁷), 虛寒²⁶⁸) 등을 제시하였다.

대소변 관련 질환으로, 麻子를 사용하는 大小便 관련 증상으로는 不通 증상이 많았다²⁶⁹)²⁷⁰)²⁷¹)²⁷²)

三錢, 杏仁 麻子 木鱉子 白蠟蠶 神曲 草麻子去殼 各一錢, 竝作末, 一匙, 煉蜜和勻, 付之腫處. 治一切癰疽無名腫瘡, 無問新舊, 神效.”(宜彙·癰疽·消毒祕方)

26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神仙太乙膏. 治虛疾八法, 癰疽, 一切惡瘡軟癰, 不問年月遠近, 已成膿·未成膿, 貼之即效. 蛇·蝎·虎·犬傷, 湯火·刀斧所傷, 並可內服, 外貼發背. ...玄參·大黃·白芷·當歸·肉桂. 右用麻子油二斤浸.”(醫墨元戎·瘡瘍疥癬例)

26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赤龍丸 ... 諸般風癰瘻, ... 火麻子研酒下; 風瘡下疔.”(醫方類聚·諸風門·經驗祕方)

26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一曰麻子疔, 其狀肉起, 頭如黍米, 色稍黑, 四邊微赤, 多痒, 忌食麻子·近油衣布衣·並入麻巾中行.”(新編醫學正傳·瘡瘍·方法·疔腫方法)

26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壹升熬黑. 壓取脂以傳頭. 長髮妙.”(備急千金要·頭面風第八·髮落不生令長方)

26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方. 右用麻子一升, 熬黑, 壓取脂, 傳頭上良.”(太平聖惠方·治小兒髮不生諸方·治小兒頭禿不生髮, 苦痒, 蔓菁子散方),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方 麻子三升熬焦. 末之, 以豬脂和塗之. 髮生爲度.”(備急千金要方·頭面風第八·治禿頂方)

26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麻子 一升熬令黑. 右壓取脂, 每日傳之.”(太平聖惠方·治眉髮不生諸方·治血虛, 眉髮不生, 宜用此方)

26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麻子 一升熬令黑. 右壓取脂, 每日傳之.”(太平聖惠方·治眉髮不生諸方·治血虛, 眉髮不生, 宜用此方)

26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方 麻子三升碎 白桐葉切一把.”(備急千金要方·頭面風第八·治脉極虛寒, 鬢髮墮落. 令髮潤澤. 沐頭方)

26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方 常煮麻子取汁飲.”(備急千金要方·秘澀第六·治大便難方)

273). 大便不通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여 虛勞로 속에 熱이 있는 경우나(274), 瘧疾(275), 熱病(276), 腹脹煩悶(277) 등을 겸한 경우에 사용하였고, 小便不利로는 淋病(278) 및 澀痛과 煩熱이 있는 경우(279)에 사용하였다. 또한 麻子를 君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홍복부에 脹滿 또는 痞滿이 있는 경우(280)(281)를 치료하였고, 심하면 血便과 尿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82). 한편 産後의 血量이나 老人의 腹滿, 惡心吐逆에도 사용하였다(283). 麻子仁丸證에서는 소변을 자주 보면서 대변이 굳는 脾約의 경우(284)에 사

용하였다.

淋證 가운데 老人의 경우에 熱이 심하거나(285), 腹滿이 있거나(286), 煩熱이 나고 통증이 있으며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287)(288), 妊娠의 경우 小便이 잦고 적으며 통증이 있는 경우(289) 등에 사용하였다. 기타 여러 약물과 결합하여 痔漏 및 腸風(290), 心腹脹滿(291), 中風으로 인한 胸膈痞滿(292), 關格不通(293), 陰莖 및 小腹痛(294) 등에 사용하였다.

麻子를 사용한 大小便不通에 대한 병인·병기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便秘(295)는 주요 원인

- 27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煮汁.”(意方合部·大小便部·小便赤黃·村救·小便不通)
- 27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小便不下, 麻子一合, 爛搗, 水調一碗下, 卽通.”(李石澗經驗方·大小便不通)
- 27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治大便秘澀, 連日不通. 麻子仁 …”(世醫得效方·大方脉雜醫科·秘澀·虛秘),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大便秘澀久不通. 麻子仁一盞半(細研水浸瀼, 去皮取汁), 脂麻 半盞(細研水浸絞取汁), 桃仁 一兩(研爲泥), 荊芥穗 一兩(搗爲末).”(東醫寶鑑·內景篇·大便·大便不通·潤腸湯)
- 27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便亦滑, 或不, 研麻子, 取汁飲.”(李石澗經驗方·大小便不通)
- 27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麻子 虛勞內熱, 大小便不利, 水煎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虛損·氣虛·菜穀)
- 27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便不通, 磨麻子取汁, 和粥服.”(四醫經驗方·瘧疾部·大小便不通)
- 27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生麻子研爛, 水調服.”(意方合部·大小便部·大小便不利·三意·熱病大便難)
- 27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便不通, 腹脹煩悶, 大麻子研取汁, 煮粥食之.”(診解救急方·大便不通)
- 27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五淋澀痛: 麻子煮粥, 如上法食之.”(本草綱目·穀一·大麻·麻仁)
- 27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小便澀痛·煩熱.”(醫學入門·本草分類·(附)食治方·麻子粥)
- 28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二便膨脹氣促, 用八角茴香七個, 大麻子仁半兩, 爲末, 生葱白三七根, 同研, 煎湯, 調五苓散末, 日一服.”(壽世秘訣·大小便)
- 28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乾燥時, 或五六日不通, 腹滿平等症, 麻子仁炒 杏仁 桃仁去皮尖各二錢, 水煎服. 連用五貼.”(宜藥·大便閉·乾燥)
- 28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腸乾澀, 裡急後重, 或下鮮血, 痰唾稠黏, 風氣下流, 腰疼脚重, 臍下脹痛, 溺赤如金. 大黃 三兩, 人參 半兩, 麻子仁 五兩另研, 訶子皮 炮取二兩.”(增注類證活人書·雜方·神功丸)
- 28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産後血量, 汗多便閉, 老人血虛風秘, 腹滿不快, 惡心吐逆. 用眞蘇子麻子各五錢.”(食鑑本草·燥·蘇麻粥)
- 28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跌陽脈浮而瀼, 浮則胃氣

- 強, 瀼則小便數, 浮瀼相搏, 大便則堅,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 麻子仁丸方”(金匱要略·五藏風寒積聚病脈證并治)
- 28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身體熱甚者, … 又方, 菉豆二升, 橘皮, 同煮粥下, 大麻子汁一升, 空心漸食, 甚效.”(壽世秘訣·老人門·淋疾)
- 28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老人五淋, 身熱腹滿, 又綠豆二升, 橘皮二兩, 煮豆粥, 下麻子汁一升.”(兩無神編·下部·諸淋門)
- 28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居家必用》青豆方 治老人淋, 煩熱, 小便, 莖中痛, 澀少不快利. 青豆 二升, 橘皮 二兩, 麻子汁 一升. 右煮豆臨熟, 卽下麻子汁, 空心, 漸食之, 併服其汁, 皆驗.”(鄉藥集成方·大小便統論·小便難)
- 28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根 一兩, 大麻子 一兩, 子芩 一兩, 亂髮灰 半兩.”(太平聖惠方·治卒淋澀痛諸方·治卒淋, 小便不通, 疼痛煩悶, 坐臥不得, 宜服麻根散方)
- 28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地膚草 蘆根, 大麻子 以上各一兩…”(太平聖惠方·治妊娠小便淋澀諸方·治妊娠淋, 小便數而少, 澀痛, 手足煩疼方)
- 29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痔漏腸風, 風熱閉結, 元氣充實者. 車前子一兩五錢·大麻子微炒·大黃五錢, 半生半熟·牛膝酒浸·郁李仁湯泡·菟絲子酒浸, 蒸晒爲末·枳殼麩炒·山藥各一錢.”(校注婦人良方·衆疾門·婦人老弱風人便秘或用藥方論第七·附治驗·搜風順氣丸)
- 29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大腸實熱, 氣壅不通, 心腹脹滿, 大便秘結. 檳榔 大黃 蒸, 麻子仁 炒, 去殼, 別研枳實 麩炒 羌活 去蘆 牽牛 炒, 杏仁 去皮尖, 炒, 白芷 黃芩 各一兩, 人參 半兩.”(世醫得效方·大方脉雜醫科·秘澀·熱秘·檳榔圓)
- 29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胸膈痞滿, 大便滯澀. 麻子仁 另研 大黃 酒煨, 各一兩半 歸尾 枳實 白芍藥 桃仁泥 升麻 半兩 人參 甘草 生陳皮 各三錢 木香 檳榔 各二錢 …”(醫學綱目·肝膽部·諸風·中淺半身偏痛舌能言·潤腸丸)
- 29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關格不通方 芒消(伍兩), 芍藥(肆兩), 杏仁(肆兩. 去皮尖雙仁), 麻子仁(參兩), 枳實(壹兩. 炙), 大黃(半斤), 乾地黃(貳兩)”(千金翼方·雜病中·淋病)
- 29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五勞七傷, 八風十二痺. 結以爲淋, 勞結爲血淋, 熱結爲肉淋. 小便不通. 莖中痛, 及小腹痛不可忍者方…以麻子飲五合 和服”(備急千金要方·淋閉),

에 따라 虛秘(296)297)298), 氣秘(299)300)301)302)303), 風秘(304)305), 熱秘(306)307)308)309)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氣秘는 熱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氣가 막혀서 熱이 생기거나 반대로 熱로 인해서 氣가 막히기도 하였다. 또한 老人 및 虛人의 便秘와 產後의 發汗으로 인한 便秘(310)311)에 두루 적합하다(312)313)는 설명이 많았으며 順氣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314).

전음, 후음 질환과 관련하여 麻子를 사용한 前陰 관련 질환으로는 여성의 帶下(315)와 濕痒을 겸한 陰挺(316), 남성의 陰囊의 濕痒(317) 등이 있었다. 後陰 질환에는 단독으로 痔(318)에 외용(319)하였으며, 君藥으로서 오래된 痔(320)와 脫肛 중 하나인 截腸病(321)에 복용하였다(322). 기타 여러 약재와 함께 痔漏와 腸風(323)324) 등에 사용하였다.

29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發汗·利小便, 致亡津液, 六腑秘結, 老人·虛人宜服…”(景岳全書·書集 古方八陣·和陣·《濟生》從容潤腸丸)

29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老人虛秘”(鄉藥集成方·大小便統論·大便難)

29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便虛秘”(本草綱目·果之三 夷果類三十一種·內附四種·海松子·附方)

29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虛勞小便淋瀝, 莖中痛,”(太平聖惠方·卷第二十九·治虛勞小便淋瀝諸方)

29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氣秘”(世醫得效方·大方脈雜醫科·秘瀉)

30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麻子. 虛勞內熱, 大小便不利, 水煎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虛損·氣虛·菜穀)

30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氣壅大便秘”(東醫寶鑑·內景篇·大便·大便秘結·參仁丸)

30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三焦氣壅, 心腹痞悶, 六腑風熱, 大便不通, 津液內枯, 大腸乾澀,”(增注類證活人書·雜方·神功丸)

30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大腸實熱, 氣壅不通, 心腹脹滿, 大便秘結.”(世醫得效方·大方脈雜醫科·秘瀉·熱秘·檳榔圓)

30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脚氣風虛, 老人津液少大便秘滯.”(鄉藥集成方·脚氣統論·諸般脚氣·三仁圓)

30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胸膈痞滿, 大便滯滯.”(醫學綱目·肝膽部·中淺半身偏痛舌能言·氣虛治驗·潤腸丸)

30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腸胃積熱, 二便燥澀, 諸風秘, 氣秘皆治之. 老人秘結尤宜…”(東醫寶鑑·內景篇·大便·老人秘結·疏風順氣元)

30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大腸有熱, 津液竭燥, 大便澀.”(景岳全書·書集 古方八陣·和陣·《良方》三仁丸)

30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如大便澀滯, 隔一二日不見者, 致食少, 食不下, 血少, 血中伏火而不得潤也”(脾胃論·脾胃虛弱隨時爲病隨病制方)

30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小便難, 脬中有熱, 水道中痛, 宜服石韋散方”(太平聖惠方·治小便難諸方)

31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產後汗多則大便秘, 難於用藥, 惟麻子粥最穩. 不惟產後可服, 凡老人諸虛風秘, 皆得力也.”(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1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婦人產後有三種疾. 鬱冒則多汗, 汗則大便秘, 故難於用藥. 唯麻子仁, 蘇子粥最佳”(婦人大全良方·產後門·產後大便秘瀉方論)

31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老人·虛人, 風秘·血

秘, 及產後便秘, 皆宜. 久服尤好.”(單方秘要經驗新編·大便門·大便秘結)

31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老人, 虛人, 風人津液少, 大便秘…”(婦人大全良方·衆疾門·婦人大便不通方論·大麻仁圓)

31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順氣, 滑大便, 治老人, 虛人風秘血秘, 大便澀滯. 婦人產後便秘, 皆宜服之.”(東醫寶鑑·內景篇·大便·老人秘結·蘇麻粥)

31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 熬食之.”(鄉藥集成方·崩漏門·崩中漏下生死脈·《三和子方》治女人帶下)

31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一婦人陰中挺出五寸許, 悶痛重墮, 水出淋漓, 小便澀滯. 夕與龍膽瀉肝湯, 分利濕熱, 朝與補中益氣湯, 升補脾氣, 諸症漸愈. 再與歸脾湯加山梔·茯苓·川芎·黃柏, 間服調理而愈. 後因勞役, 或怒氣, 下部濕痒, 小便不利, 仍用前藥即愈. 又方 治前症. 用麻子仁, 研塗頂中, 自吸入即洗去.”(校注婦人良方·衆疾門·婦人陰挺下脫方論)

31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煎湯, 頻頻洗之.”(李石澗經驗方·囊下濕痒)

31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0.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188-189.)

31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肆升壽. 生布袋盛. 飯下蒸之. 絞取脂銅盤盛煖之. 以綿作貼子. 坐使正. 當蒸痔孔. 須臾易之. 更坐蟲出.”(千金翼方·瘡癰下·腸痔第七·療外痔方)

32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茯苓麩 茯苓·麻子를 各去皮하고 和勻하여 九蒸九晒하고 入蜜 少許하여 食之라 能斷酒肉及塩·酪·醬菜면 可治久痔니라.”(醫學入門·內集卷又二下·本草分類·(附)食治方·茯苓麩)

321) 脫肛이 심한 것을 말함.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0.

32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截腸怪病·大腸頭出寸餘. 痛苦, 乾則自落, 又出, 名爲截腸病, 若腸盡即不治. 但初覺截時, 用器盛脂麻油坐浸之, 飲大麻子汁數升, 即愈也.”(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2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痔漏腸風, 風熱閉結, 元氣充實者.”(校注婦人良方·衆疾門·婦人老弱風人便秘戒用利藥方論第七·附治驗·搜風順氣丸)

32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痔漏大便硬, 努出大腸頭, 下垂多血, 苦疼不能忍.”(醫學綱目·肺大腸部·痔·大腸硬者寬腸·垣當歸郁李仁湯)

감염병에서는 瘴氣, 疫癘, 溫毒 등에 단독으로 복용하였으며³²⁵⁾, 설날 아침에 大麻子와 赤小豆를 우물 속에 넣어 溫病³²⁶⁾, 瘴氣疫癘溫毒³²⁷⁾, 時氣瘴疫³²⁸⁾ 등의 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君藥으로 사용하여 腹癰瘡母³²⁹⁾와 勞復³³⁰⁾에 복용하였는데, 병을 오래 앓아 虛하면서 사기가 鬱滯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또한 傷寒으로 인한 小兒의 壯熱에 외용하였으며³³¹⁾, 여러 약재들과 함께 傷寒으로 인한 心下煩滿에도 사용하였다³³²⁾.

각종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吳茱萸根과 함께 복용하여 寸白蟲³³³⁾, 三蟲³³⁴⁾등 蠃속의 蟲病을 치료하

여 蟲이 빠져나오게 하였다³³⁵⁾. 또한 吳茱萸根과 橘皮과 함께 복용하여 白蟲이 脾에 있어 구역질을 자주하는 경우에 사용하였으며³³⁶⁾, 綠豆와 함께 복용하여 虻蟲이 心을 공격하여 맑은 물을 토하는 경우³³⁷⁾에도 사용하였다. 기타 疳蟲에 의해 치아 뿌리가 삭는 데에도 사용하였다³³⁸⁾.

부인과 질환으로는 먼저 月經不通에서,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月經不通과 不順에 사용하였으며³³⁹⁾³⁴⁰⁾³⁴¹⁾, 겸증으로는 瘕³⁴²⁾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병인·병기를 살펴보면 瘀血 및 風冷³⁴³⁾³⁴⁴⁾, 氣滯血澇³⁴⁵⁾ 등이 있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복용하여 출산을 촉

32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云: 麻子人, 可作三種, 服之.”(醫方類聚·傷寒門·肘後方·治瘴氣疫癘溫毒諸方) 여기서 ‘可作三種’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三種의 麻子라고 한다면 春·秋·冬 麻子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32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正旦吞麻子赤小豆各二七枚. 又以二七枚投井中.”(備急千金要方·辟溫第二·治溫, 令不相染方),

32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正月朔旦及七月, 吞麻子·小豆各二七枚, 又各二七枚投井中, 又以附子二枚, 小豆七枚, 令女子投井中.”(醫方類聚·傷寒門·肘後方·治瘴氣疫癘溫毒諸方)

32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時氣瘴疫單行方 … 又方 正月朔旦, 及七日, 吞麻子·赤小豆各二七枚. 又各以二七枚, 投於井中. 又以附子三枚, 令女子投於井中. 四時纂要 投麻豆辟溫法, 魚龍河圖云: 除夜四更, 取麻子·小豆各二七粒, 家人髮少許, 投井中, 終歲不遭傷寒溫疫.”(醫方類聚·傷寒門·聖惠方六·治時氣瘴疫諸方)

32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腹癰瘡母法. 甞子甞이 … 芡와 菴麥 各一錢, 細末, 合蛇油作丸, 而蘿蔔及麻花, 不可多入. 麻花未得, 則代以麻子可也. 此則去瘡母.”(宜藥·小兒急驚·瘡疾·瘡母)

330) youl. 2003. [상동]: “鼠屎, 兩頭尖者二七枚, 豉五合, 以水三升煎半, 頓服之, 可服, 溫覆取汗愈, 有麻子仁納一升, 加水一升, 彌良, 亦可納枳實, 蔥白一虎口也.”(肘後備急方·治時氣病起諸勞復方第十四·治篤病新起早勞, 及食飲多致欲死方)

33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青木香 四兩 麻子人 一升 虎骨 五兩 白芷 三兩 竹葉一升 … 稍稍浴兒.”(備急千金要方·傷寒第五·青木香湯浴小兒壯熱瀉瘡方)

33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之才曰: 此胡, 茯苓, 桔梗·大黃·石膏·麻子仁·甘草·桂, 以水一斗, 煮取四升, 入消石三方寸七, 療傷寒寒熱頭痛, 心下煩滿.”(本草綱目·草之二 山草類下三十九種·此胡·根·發明)

33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吳茱萸根一把熟搗 大麻子三升熬搗末.”(備急千金要方·九蟲第七·治寸白蟲方)

33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茱萸根 東引者長一尺 大麻子 一升 … 蟲當自下.”(太平聖惠方·治三蟲諸方·治三蟲)

33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腹中蟲病: 大麻子仁三升, 東行茱萸根八升, 漬水. 平旦服二升, 至夜蟲下.”(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3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脾勞熱. 有白蟲在脾中爲病. 令人好嘔. … 東引吳茱萸根大者(一尺) 大麻子(八升) 橘皮(二兩)”(備急千金要方·卷第十八大腸腑·九蟲第七)

33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綠豆 一升水三升煮取汁一升 大麻子 一升水研取汁半升. 右以麻子豆汁各半盞, 暖令溫, 蟲正發時, 先炙淡羊肉膷令熟, 嚼含臘汁, 三五噉即服之, 須臾或吐或利, 其蟲當自出, 如未盡, 再服.”(太平聖惠方·治虻蟲諸方·治虻蟲, 或攻心, 吐清水, 宜服狼牙散方)

33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純麻子燭燼研. 以井花水塗之.”(備急千金要方·齒病第六·治疳蟲蝕齒根方)

33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牛膝壹斤麻子參升蒸 土瓜根參兩 桃仁貳升. …”(重刊孫真人備急千金要方·月水不通第二·治月經不通甚極閉塞方)

34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經年月水不利. 胞中有風冷. 故須下之. 大黃朴消湯方…”(千金翼方·婦人四·月水不利)

34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何孺人, 氣滯血澇, 脈不澇, 經不調, 或前或後, 紫色, 日苦兩大腿外腫麻木, 有時癢, 生瘡, 大便秘滯. 麻子仁桃仁芍藥 各二兩 枳殼白朮歸頭破靈仙訶子肉生地陳皮 各五錢 大黃 煨, 七錢…”(醫學綱目·婦人部·婦人治法通論·調經·海四物加黃芩黃連湯)

34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水蛭熬 土瓜根 芒消 當歸各貳兩 桃仁壹升. 去皮尖 大黃 桂心 麻子 牛膝各參兩.”(千金翼方·婦人四·月水不利第二·治瘕. 月水瘀血不通. 下病散方)

34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經年月水不利. 胞中有風冷. 故須下之. 大黃朴消湯方…”(千金翼方·婦人四·月水不利)

34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桃仁 麻子人各貳升 菴藷子壹升 右三味咀咀, 以好酒三斗浸五宿. 每服五合. 日三. 稍加至一升.”(重刊孫真人備急千金要方·月水不通第二·治產後風冷. 留血不去停結. 月水閉塞方)

34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何孺人, 氣滯血澇, 脈不澇, 經不調, 或前或後, 紫色.”(醫學綱目·婦人部·調經·經色紫黑爲熱·海四物加黃芩黃連湯)

진시키거나 산후에 태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였으³⁴⁶⁾, 倒産³⁴⁷⁾에도 사용하였다. 기타 여러 약재들과 함께 출산 전에 順産을 준비하거나³⁴⁸⁾, 유산 시의 예방³⁴⁹⁾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산후 여러 증상들의 치료에도 사용되어³⁵⁰⁾ 産後의 瘀血不盡으로 인한 惡露³⁵¹⁾³⁵²⁾³⁵³⁾등에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기타 약재들과 함께 산후의 秘塞出血 등 각종 증상에 사용하였다³⁵⁴⁾³⁵⁵⁾³⁵⁶⁾. 주로 산후의 瘀血이나 虛寒으로 오는 滿, 痛 등의 막히는 증상을 치료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약재들과 함께 복용하여 崩漏를 치료하였으³⁵⁷⁾ 젖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사용하

였고³⁵⁸⁾³⁵⁹⁾, 妊娠 중의 腰痛과 心痛煩悶을 치료하는 데에 단독으로 사용하였다³⁶⁰⁾³⁶¹⁾³⁶²⁾. 崩漏에 동반되는 絶陰은 陰이 고갈된 치료하기 어려운 병증인데, 陽證보다는 氣虛한 증상을 보여 陰陽이 다 손상된 오래된 병정임을 알 수 있다.

기타 麻子는 각종 내과질환에도 사용되었다. 虛勞와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사용하여 虛勞의 여러 증상을 치료하며³⁶³⁾, 法麩으로 술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³⁶⁴⁾. 기타 여러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五勞七傷에서 補虛益精하며³⁶⁵⁾ 下焦의 虛熱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였다³⁶⁶⁾. 또한 炙甘草湯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에 활용되었다³⁶⁷⁾³⁶⁸⁾³⁶⁹⁾.

34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大麻子, 催生令易産. 濃煎取汁, 頓服, 立産. 産后 胎不下, 亦妙.”(宜稟·婦人·産前後宜用藥方·催生易産)

34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仁. 倒産, 吞二七枚.”(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産難·催生)

34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甘草散令易生. 母無疾病, 未生一月, 日預服. 過三十日. 行步動作如故. 兒生墮地. 皆不自覺方.”(備急千金要方·養胎第三·妊娠十月. 五藏俱備. 六腑齊通. 納天地氣於丹田. 故使關節人神皆備. 但俟時而生)

34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備急千金要方·養胎第三) “若曾傷三月胎者. 當預服茯神湯方. 茯神 丹參 龍骨各一兩 阿膠 當歸 甘草 人參各二兩 赤小豆二十一粒 大棗二十一枚... 深師有薤白二兩 麻子一升.”

35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備急千金要方·養胎第三) “千金丸主養胎. 及産難顛倒胞不出. 服一丸. 傷毀不下. 産餘病汗不出. 頰滿不止. 氣逆滿. 以酒服一丸良. 一名保生丸方. 甘草 貝母 秦椒 乾薑 桂心 黃芩 石斛 石膏 粳米一作糯米 大豆黃卷各六銖 當歸十三銖 麻子三合.”

35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産後瘀血不盡: 麻子仁五升, 酒一升漬一夜, 明旦去麻仁溫服一升, 先食服不瘥, 再服一升, 不吐不下. 不得與男子通一月, 將養如初.”(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5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子母産後穢汚不盡, 腹滿. 用麻子三兩, 酒五升, 煮取一升, 分溫二服. 當下惡物.”(醫學綱目·脾胃部·胎前腹脹·産後腹脹·汚血)

35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仁. 浸酒, 去瘀血, 産後餘疾.”(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産後·補虛活血)

35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産後秘塞出血多: 以人參·麻子仁·枳殼麩炒. 爲末, 煉蜜丸梧子大. 每服五十丸, 米飲下.”(本草綱目·草之一 山草類上一十三種·人參·根·附方)

35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産後餘疾. 寒下凍凍裡急. 胃脇滿痛. 欬嗽嘔血. 寒熱. 小便赤黃大便不利方. … 麻子人各半升.”(備急千金要方·下痢·澤蘭湯)

35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鮑魚湯主産後腹中虛極. 水道閉絕. 逆脹. 咽喉短氣方...”(千金翼方·婦人·虛損第七)

35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婦人傷中崩中絶陰. 使人怠惰. 不能動作. 胸脅心腹四肢滿. 而身寒熱. 甚溺血. 桑根

煎方. 桑根白皮細切壹斗. 麻子仁參升...”(千金翼方·婦人四·崩中第一)

35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麻子仁. 煮汁.”(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産後·下乳汁)

35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鮑魚大麻子羹治婦人産後下乳 鮑魚肉參斤 麻子仁壹升”(千金翼方·婦人三·下乳第三)

36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又方 麻子三升. 以水五升. 煮取汁三升. 分五服. 亦治心痛.”(備急千金要方·妊娠諸病第四·心腹腰痛及脹滿第四方二十首·治妊娠腰痛方)

36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妊娠心痛煩悶: 麻子仁一合研, 水二盞, 煎六分, 去滓服. 《聖惠》”(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6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穀果 麻子仁. 妊娠心痛, 研水煎服.”(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心腹痛·火鬱)

36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虛勞內熱, 下焦虛熱, 骨節煩疼, 肌肉急, 小便不利, 大便數, 少氣吸吸, 口燥熱淋: 用大麻仁五合研, 水二升, 煮減半, 分服. 四五劑瘥.”(本草綱目卷二十二·穀之一·大麻·麻仁·附方)

36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主虛勞百病. 傷寒風濕. 及婦人帶下. 月水往來不調. 手足疼痺著床. 服之令人肥健方. 麻子一石 法麩一斗 右二味. 先搗麻子成末. 以水兩石著釜中. 蒸麻子極熟. 炊一石米. 須出滓. 隨汁多少如家醪法. 候熟. 取清酒隨性飲之.”(備急千金要方·風痺第八·麻子酒)

36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主五七傷百病方”(備急千金要方·補腎第八·補虛益精大通丸)

36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虛勞下焦有熱. 骨節疼痛. 肌肉內痞. 小便不利. 大便數而少. 吸吸口燥少氣折石熱湯方. 大麻子五合. 去皮 豉貳升. 綿裹... 分三服. 服三劑. 即止.”(千金翼方·飛煉·解石及寒食散并下石第四論一首方六十九首)

36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復脈湯主虛勞不足. 汗出而悶. 脈結. 心悸. 行動如常. 不出百日. 危急者二十一日死方.”(千金翼方·補益·五藏氣虛第五方九首)

36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傷寒脈結代, 心動悸

효능 및 주치의 특성을 五臟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肺에 주로 작용하는 약재들과 함께 복용하여 肺가 虛冷하여 肺氣가 不足한 경우³⁷⁰⁾와 中焦의 손상으로 肺氣가 不足한 경우³⁷¹⁾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脾에 주로 작용하는 약재들과 함께 복용하여 脾가 虛冷하거나 脾氣가 弱한 경우³⁷²⁾, 오래된 積과 滯氣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風熱의 氣가 上衝하는 경우³⁷³⁾ 등등의 여러 비 증상에 사용하였다³⁷⁴⁾³⁷⁵⁾. 腎의 경우에는 腎虛로 인한 각종 병증에 사용하였으며³⁷⁶⁾³⁷⁷⁾³⁷⁸⁾³⁷⁹⁾³⁸⁰⁾³⁸¹⁾, 腎의 손상이 寒

濕으로 인한 경우에도 사용하였다³⁸²⁾. 또한 전반적인 五勞七傷의 병증에도 사용하였다³⁸³⁾³⁸⁴⁾.

구토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복용하여 惡心³⁸⁵⁾, 嘔吐³⁸⁶⁾³⁸⁷⁾³⁸⁸⁾³⁸⁹⁾와 霍亂轉筋³⁹⁰⁾ 등에 사용하였으며, 小豆와 함께 反胃로 인한 구토에도 복용하였다³⁹¹⁾.

消渴에 있어서는 단독 복용하여 消渴로 열이 나

- 者. 又治肺痿, 咳吐多, 心中嘔噦液液者.”(刪補名醫方論·炙甘草湯)
- 36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肺痿用麻子仁可也.”(刪補名醫方論·炙甘草湯)
- 37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肺氣不足. 咳唾膿血. 氣短不得臥麻子湯方. 麻子一升 桂心 人參各二兩 阿膠 紫菀各一兩 生薑三兩 乾地黄四兩 桑白皮一斤 錫一斤 … 合煮取四升分. 五服.”(備急千金要方·肺虛實第二·肺虛冷)
- 37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傷中湯主傷中肺氣不足. 脇下痛上氣. 欬唾膿血不欲食. 惡風. 目視聰聰. 足脛腫方. 生地黃半斤. 切 桑根白皮參升. 切 生薑五兩 白膠伍 麻子仁 芎藭各壹升 紫菀參兩 麥種 飴糖各壹升 桂心貳尺 人參 甘草灸. 各壹兩.”(千金翼方·補益·補五藏第四)
- 37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豆散. 主脾氣弱. 不下食. 餌此以當食方. 大豆黃二升 大麻子二升熬令香 右二味. 治下節. 飲和服一合…”(備急千金要方·脾虛實·脾虛冷)
- 37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久積滯氣. 不能飲食. 食即不消. 風熱氣上衝. 宜服利氣大黃圓方. 川大黃 四兩到碎微炒 訶黎勒皮 四兩 人參 二兩去蘆頭 大麻子 二兩 … 每服. 酒下十五圓. 老少以意增減服之. 以瀉利爲度.”(太平聖惠方·大黃圓)
- 37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補脾湯主不欲食. 留腹中. 或上或下. 煩悶. 得食輒嘔欲吐. 已即脹滿不消. 噫腥臭發熱. 四肢腫而苦下身重. 不能自勝方. 麻子仁參合 禹餘糧貳兩 桑根白皮壹斤 大棗壹百枚. 擘 黃連 乾薑 白朮 甘草灸. 各參兩.”(千金翼方·補益·補五藏第四)
- 37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腹脹善噯. 食則欲嘔. 泄瀉下. 口乾. 四肢重. 好怒. 不欲聞人聲. 忘誤. 喉痺. 補之方. 黃連一兩 禹餘糧二兩 白朮三兩 大麻子五兩 乾薑三兩 桑白皮八兩 大棗二十枚 … 分四服.”(備急千金要方·脾虛實第二·脾胃俱虛)
- 37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五種腰痛. 夜多小便. 膀胱宿冷. 宜服鹿角霜方. …”(太平聖惠方·治五種腰痛諸方)
- 37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內勞少氣. 寒疝裡急. 腹中喘逆. 腰脊痛. 除百病方. …”(備急千金要方·風虛雜補酒煎第五·填骨黃金煎)
- 37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神仙枸杞子酒. 療虛羸黃瘦. 不能食. 服不過兩劑. 必得肥充. 無所禁斷方. …”(太平聖惠方·枸杞酒方)

- 37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地黃酒酥令人髮白更黑. 齒落更生. 髓腦滿實. 還年卻老. 走及奔馬. 久服有子方. …”(千金翼方·養性·養性服餌第二方參拾柒首)
- 38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地黃酒. 治虛羸. 益氣力. 輕身明目. 令人能食. 久服. 去萬病. 婦人服之更佳. …”(太平聖惠方·地黃酒方)
- 38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補腎麻子仁炒. 《入門》”(東醫寶鑑·湯液篇·草部·唐 補骨脂)
- 38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腎勞虛冷. 乾枯. 憂恚內傷. 久坐濕地. 則損腎方 …”(備急千金要方·腎勞第三)
- 38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枸杞酒. 除五臟邪氣. 消渴風濕. 下胸脅氣. 利大小腸. 填骨髓. 長肌肉. 治五勞七傷. 利耳目. 消積滯. 傷寒. 瘴氣虛勞. 呼吸短氣. 及肺氣腫痺. 并主之方. …”(太平聖惠方·枸杞酒方)
- 38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崔氏枸杞酒. 取豆豉以枸杞湯淋秋麻子粉. 煮汁取半浸醱. 取半浸米. 和地黃蒸飯釀成酒. 治五內邪氣. 消渴風濕. 下胸脅間氣. 頭痛. 堅筋骨. 強陰. 利大小腸. 填骨髓. 長肌肉. 破除結氣. 五勞七傷. 去胃中宿食. 利耳目鼻衄吐血內濕風疰. 補中逐水. 破積滯膿惡血石淋. 長髮. 傷寒瘴氣煩躁滿悶. 虛勞喘吸. 逐熱破血. 及腳氣腫痺.”(本經疏證·中品·淡豆豉)
- 38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麻子一升. 熬令香. 熟搗. 取酒三升. 熟研. 濾取一升. 飲盡. 日二服. 盡一石差. 一切病自能食飲. 不能酒任性多少.”(備急千金要方·嘔吐噦逆第五·治惡心方)
- 38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三兩. 杵熬. 以水研取汁. 着小鹽喫之.”(食療纂要·嘔吐 附咳逆·治嘔立効)
- 38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三兩. 杵熬. 以水研取汁. 着小鹽服之.”(李石澗經驗方·中·嘔吐)
- 38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嘔逆不止. 麻仁. 杵熬. 水研取汁. 入鹽少許. 服. 立効. 《外臺》”(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麻子治驗)
- 38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一二日一吐. 三四日一吐. 五六日一吐. 名胃囊疰. 難治. 急以附子五錢. 白茯苓一兩. 每日煎服二次. 至二日. 吐出食物. 必變氣味. 再服三日則吐一半. 又服三日則不吐. 不吐後. 用六味地黃湯. 加當歸 麻子仁研末各二兩. 煉蜜丸. 每早服五錢重. 晚服白芝麻五錢. 服數日. 胃囊從大便而出. 重者如牛皮形. 輕者如紙. 此方係仙傳. 萬金難得.”(袖珍經驗神方·男婦通治門·嘔吐疰·反胃)
- 39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方 大麻子壹升. 搗. 以水參升. 煮取壹升. 盡服之.”(千金翼方·雜病上·霍亂第一·治霍亂轉筋. 兩臂及腳. 胃腸諸轉筋. 並主之方)
- 39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三兩. 杵熬以水研取汁. 着小豆. 喫之. 立効.”(意方合部·癰疽部·三意·反胃·反胃吐食多年)

고 煩亂하며 갈증이 나는 경우³⁹²⁾³⁹³⁾³⁹⁴⁾, 下消로 진액이 말라서 갈증이 나고 小便이 赤澀한 경우³⁹⁵⁾³⁹⁶⁾³⁹⁷⁾에 사용한다. 기타 여러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여 虛熱로 인한 消渴의 여러 증상³⁹⁸⁾³⁹⁹⁾⁴⁰⁰⁾들을 치료하였다.

부종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여 小兒浮腫의 여러 증상을 치료하였으며⁴⁰¹⁾, 君藥으로 복용하여 다양한 수종의 증상들을 치료하였다⁴⁰²⁾⁴⁰³⁾⁴⁰⁴⁾⁴⁰⁵⁾⁴⁰⁶⁾⁴⁰⁷⁾⁴⁰⁸⁾⁴⁰⁹⁾⁴¹⁰⁾⁴¹¹⁾. 기타 다양한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여 여러 부종의 증상들과 겸증들을 치료하였다⁴¹²⁾⁴¹³⁾⁴¹⁴⁾⁴¹⁵⁾⁴¹⁶⁾. 주로 부종이 있으면서 소변이 걸끄러운 것이나 숨이 가쁜 경우가 많았으며 煩과 心腹 및 신체의 통증을 수반한 경우도 있었고 風으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⁴¹⁷⁾.

이질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복용하여 赤痢⁴¹⁸⁾ 또는 赤白痢⁴¹⁹⁾, 濕熱로 인한 痢疾⁴²⁰⁾ 등에 사용하였

39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消渴熱, 或心神煩亂, 宜服此方 秋麻子半升 ... 時服一小盞.”(太平聖惠方·治消渴諸方)

39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又方 秋麻子半升, ... 時服一小盞.”(鄉藥集成方·三消論·消渴·治消渴, 熱盛, 心神煩亂)

39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乳石發渴, 大麻仁三合...”(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麻子治驗)

39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補下治渴: 麻子仁一升, ... 冷服半升, 日二.”(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96)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仁. 煮汁.”(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消渴·生津潤燥·穀菜)

397)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消渴飲水, 日至數斗, 小便赤澀: 用秋麻子仁一升, 水三升, 煮三四沸. 飲汁, 不過五升瘥.”(肘後方)”(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39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虛熱, 小便利而多. 服石散人虛熱. 當風取冷. 患腳氣. 喜發動. 兼渴消腎. 脉細弱. 服此湯立滅方. 阿膠二挺 乾薑二兩 麻子一升 遠志四兩 附子一枚... 分三服.”(備急千金要方·消渴第一)

39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消渴 大便閉澀 乾燥結硬 兼喜溫飲 陰頭退縮 舌燥口乾 眼澀難開 及於黑處 見浮雲”(蘭室秘藏·消渴門·消渴論·當歸潤燥湯)

400)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通治消渴.”(東醫寶鑑·雜病篇·消渴·消渴通治藥·活血潤燥生津飲)

401)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三合, 研, 濾汁 白米三合 煮粥, 空心食之.”(鄉藥集成方·小兒科·小兒咳嗽·《鄉藥簡易方》治小兒咳嗽氣急, 小便澀少, 面目浮腫)

40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大麻子二升, 以文火炒, 纔爆一聲, 便滾童子小便三升良久分爲二服, 服訖脫襪垂兩足, 以盆承之, 須與兩足中指響然有聲甲中綻裂一身水腫自此瀝盡. 此方出於唐書盧堂傳, 忽有神人傳.”(鄉藥集成方·水病論·《鄉藥救急方》療水腫)

40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水氣通身洪腫. 百藥治之不差. 待死者方. 大麻子一石皆取新肥者佳 赤小豆一石不得一粒雜 ... 并一切氣病. 服者皆差.”(備急千金要方·水腫第四)

40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豆煎 主大腹水腫方. 大麻壹石. 未入甕不鬱搯者 赤小豆壹石. 不得壹枚雜 ... 蒸麻子使熟 ...” (千金翼方·雜病中·水腫第三)

40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男婦大頭面手足腫. 用苦葶藶炒研, 棗肉和丸小豆大. 每服十丸, 煎麻子湯下, 日三服. 五七日小便多, 則消腫也. 忌鹹酸生冷.”(本草綱目·草之五·葶藶·附方)

406)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頭面手足虛腫. 又治水氣喘急. 葶藶子, 隔紙炒爲末, 棗肉和丸小豆大. 麻子煎湯下十丸, 日三.”(東醫寶鑑·雜病篇·浮腫·單方·葶藶子)

407)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水腫, 脚滿, 氣急. 鯉魚肉 十兩, 葱白 一握, 麻子一升取汁, 煮作羹, 入鹽豉·薑·椒調和, 空心, 食之.”(東醫寶鑑·雜病篇·浮腫·單方·鯉魚)

40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老人浮腫, 厭食太甚, 則麻子一升爛搗取汁, 米四合, 鯉魚四兩重, 和合作粥, 葱白 胡椒 生干調合, 食之.”(宜彙·水腫·老人浮腫)

409)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仁粥: 治風水腹大, 腰臍重痛, 不可轉動. 用冬麻子半斤, 研碎, 水濾取汁, 入梗米二合, 煮稀粥...”(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附方)

410)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鯉魚臙: 治水腫 滿悶·氣急·不能食, 皮膚欲裂·四肢常疼, 不可屈伸. 用鯉魚 十兩·葱白 一握 麻子 一升取汁...”(醫學入門·內集·本草分類四·(附)食治方·鯉魚臙)

411)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粥: 治水氣 腫滿·身體疼痛·不能飲食. 用麻子 一升取汁에 下米 四合·鯉魚肉 七兩 煮粥 ... 兼治耳聾”(醫學入門·內集·本草分類四·(附)食治方·麻子粥)

412)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遍身流腫方. 麻子五升 當陸一斤 防風三兩 附子一兩 赤小豆三升...”(備急千金要方·水腫第四·麻子湯),

413)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毒腫, 發無定處, 或惡氣入腹, 刺痛, 煩悶不已, 射干散方. 射干 二兩 高陸 一兩 附子 一兩炮裂去皮臍 以上三味搗羅爲末. 赤小豆 三合 麻子 二合研...”(太平聖惠方·治毒腫入腹諸方)

414)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主毒腫無定處, 或軟瀉惡寒. 或心腹刺痛煩悶者. 此由毒氣深重也. 大麻子蒸 赤小豆各五升 生商陸貳升. 薄切之 升麻肆兩 附子炮 射幹各參兩...”(千金翼方·瘡癰下·惡核第四·大麻子赤小豆湯)

415)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頭面四肢卒浮腫, 小便澀, 及陰腎腫, 宜服此方. 甜葶藶 二兩隔紙炒令紫色 牽牛子二兩微炒 海藻 一兩洗去鹹味 昆布 一兩洗去鹹味 猪苓 二兩去黑皮 澤瀉 二兩”(太平聖惠方·治水氣身面卒浮腫諸方)

416)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治水腫, 欬逆上氣, 坐臥不得, 宜服此方. ... 如梧桐子大, 每服, 煮赤小豆飲, 及大麻子飲, ... 又方. ... 圓如梧桐子大, 每於食前, 以大麻子湯下七圓.”(太平聖惠方·治水腫欬逆上氣諸方)

41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314-315..

41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炒黃作末, 溫酒服.”(宜彙·痢疾·赤痢)

다. 또한 綠豆와 함께 赤痢⁴²¹)가 멈추지 않을 때, 柏葉과 함께 小兒의 赤白痢疾⁴²²), 胡麻와 함께 赤白痢가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 관장 요법으로 사용하였다⁴²³). 濕熱로 인한 赤痢 또는 赤白痢를 다스리는데, 특히 赤白痢의 경우는 冷과 熱이 서로 교착하고 있는 것으로 熱로 인하여 血이 스며나가게 하고 冷氣가 津液을 응체 시킨 것⁴²⁴)으로 볼 수 있다.

脚氣의 질환에서는 단독으로 복용하여 脚氣가 복부로 들어가 痺症이 된 경우⁴²⁵)와 煩悶과 吐逆으로 먹지 못하는 경우⁴²⁶)에 사용하였다. 車前草, 麻子, 赤土 등과 함께 외용하여 脚氣로 인한 疼痛에도 사용하였다⁴²⁷). 이들 경우는 모두 邪氣가 배로 들어가心を 공격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宣壅逐濕을 위주로 하되 겸하여 祛風清熱, 調血行氣의 처방을 사용한다⁴²⁸).

이외에도 여러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여 菜疔을 치료하였으며⁴²⁹), 不換金正氣散을 쓸 때 가감법으로

喘이 있으면 麻子和 藜子葉을 더하였다⁴³⁰). 또한 郁李仁和 함께 사용하여 식사 후에 즉시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⁴³¹)를 치료하였고 瘀血을 흘려서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도 하였다⁴³²). 이외에도 柏子仁和 함께 복용하여 음주에 취하지 않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⁴³³).

추가적으로 麻子の 활용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麻子를 禁忌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風病에 麻子가 금기인 경우가 있었는데 일체의 風 및 大風으로 인한 腳弱風痺를 치료하고자 松脂를 술과 함께 먹을 때 뜨거운 술을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는데, 이때 변비를 보고 大麻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大麻子를 금기하였고 변비가 올 경우 葱羹, 生地黄을 쓰라고 하였다⁴³⁴). 다음으로 부인과 질환에 금기인 경우가 있었는데, 여성이 갑자기 아랫배 속이 아프고 月經이 처음 올 때 허리 속이 끊어질 듯이 아픈 것이 척추까지 이어져서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하여 참을 수 없는 증상에 積雪草(병풀)로 치료하는데 麻子를 피하라고 하였다⁴³⁵). 피부병에서는 麻子疔에 麻子를 먹는 것을 禁忌로 하였고⁴³⁶), 이와 유사하게 丁腫病에 麻勃을 보지 말라

41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小兒赤白痢多, 體弱不堪下, 大因重者. 麻子一合, 炒令香熟, 爲末, 每服一錢匕, 蜜漿水和服, 效.”(醫學綱目·小兒部·脾主濕·赤白痢·體弱不堪下者甘寒潤之)
42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仁 炒研.”(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痢·濕熱·穀菜)
42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赤痢不止: 以大麻子, 水研濾汁, 煮綠豆食之, 極效. 粥食亦可. 《必效方》”(本草綱目·穀之三 菽豆類一十四種·綠豆 宋《開寶》·[附方])
42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小兒赤白滯下 又方 柏葉, 麻子末 各一升...”(鄉藥集成方·小兒科·小兒赤白痢)
42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甘食人諸處凡是赤白痢久不瘥秘之方 大麻子 胡麻各壹升半. 並熬令焦赤 ...”(千金翼方·瘡癰下·甘濕第六)
424)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8.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54-555..
42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脚氣腹痛, 大廉仁一升, 研碎, 酒三升, 漬三宿, 溫服, 大良.”(廣濟秘笈·鄉藥單方治驗·麻子治驗)
42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仁粥 治脚氣 痺弱·煩悶·吐逆 不下食. 用麻子一斤 取汁”(醫學入門·內集·本草分類 四·(附)食治方·麻子仁粥)
42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脚氣上攻疼痛. 車前草, 麻子, 赤土. 右以水同煎, 浴三日差.”(鄉藥集成方·脚氣統論·脚氣上氣)
42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63-64.
42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菜疔, 桑槲 覆盆子 各一斗, 麻子末一合, 牛黃 熊膽 各三分, 生清一器, 和勻, 入甕中

堅封, 至十月朔日, 始服, 無不差. <舟>”(宜藥·黃疸·菜疔)
43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喘, 加麻子 藜子葉.”(依源學綱·任賓十三方加減四十·不換金正氣散)
43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大便飯後, 隨即大便. 郁李仁 麻子仁, 并搗碎, 各五錢. 煎服, 差.”(袖珍經驗方·男婦通治門·第二十四章 大便病)
43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麻子仁 並消散瘀血.”(本草綱目·百病主治藥上·瘀血·破血散血·穀菜)
43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飲酒令人不醉方. 柏子人麻子人各二兩 右二味. 治下篩. 爲一服. 進酒三倍.”(備急千金要方·卒死第一)
43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單服松脂. 治一切風及大風. 腳弱風痺方. 薰陸法亦同. 松脂三十斤. ... 用酒服一方寸匕. 日二. 初和藥以冷酒. 藥入腹後飲熱酒. 行藥以知爲度. 如覺熱即減. 不減令人大小便秘澀. 若澀冥食葱羹. 仍自不通. 宜服生地黄汁. 令取泄痢. 除忌大麻子以外無所禁.”(備急千金要方·卷第七風毒脚氣·諸散第三)
43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女子少腹痛: 頌曰,《天寶單行方》云, 女子忽得小腹中痛, 月經初來, 便覺腰中切痛連脊間, 如刀錐所刺, 不可忍. 衆醫不別, 謂是鬼疰, 妄服諸藥, 終無所益, 其疾轉增. 察察前狀相當, 即用此藥. ... 忌麻子·蕎麥.”(本草綱目·草之三 芳草類五十六種·積雪草·[附方])
43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一曰麻子疔, 其狀肉起, 頭如黍米, 色稍黑, 四邊微赤, 多痒, 忌食麻子·近油衣布衣

는 禁忌가 있었다⁴³⁷⁾

Ⅲ. 考察

1. 병증분류별 大麻 각 부위의 활용

인지 및 감각기관을 밝게 하는 효과에 쓰인 부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귀를 맑게 하는 효과에 麻花, 麻葉, 麻子가 사용되었으며, 눈을 맑게 하는 효과에는 麻葉과 麻子가 사용되었다. 특이적으로 麻花는 補心하여 健忘을 주치하였으며, 麻子是 벽곡방으로도 사용되어 눈과 귀를 맑게 하고 배고픔을 잊으면서 脾氣의 운화력을 강화해서 먹는 양이 적어도 더 기력을 올려서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각종 風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된 부위는 麻花와 麻子로, 麻葉과 麻根은 破傷風을 제외하면 風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麻花와 麻子是 頭風과 中風氣虛에 쓴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中風을 치료하는데 있어 麻花를 쓰는 경우는 저림과 마비 쪽으로 작용이 치우쳐 있는 반면, 麻子是 마비를 포함하여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한 증상, 攣急, 언어 장애 등 중풍을 폭넓게 다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외상을 제외한 각종 통증에는 모든 부위가 사용되었다. 麻花는 胸腹痛에, 麻葉은 齒痛과 蟲齒에 사용되었다. 麻根은 寒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이 아플 때와 積血이 있어 腰眼부위가 아플 때 사용되었고, 麻子是 痰이 걸리는 통증, 骨髓의 風毒으로 인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疳蟲에 의해 치아 뿌리가 삭은 것, 咽痛, 尸咽 등에 사용되었다.

외상의 경우에는 네 부위 모두 金瘡에 사용되었는데, 金瘡으로 인해 고인 瘀血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었다. 麻根은 麻葉과 함께 사용하여 과상풍, 타박상, 골절 등을 다스릴 수 있었다.

해독의 경우는 麻葉은 뱀에게 물린 경우 뱀독을 해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麻子是 화살독, 射罔, 石

藥의 毒에 사용되었다. 뱀독과 화살독은 사람을 매우 빠르게 마비시키고 죽게 하므로 風毒의 성질을 가지며, 石藥의 毒은 燥熱한 성질의 石藥에 의해 체내 형성된 熱毒이다. 그리고 직접구를 뜯 때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경우, 마취시키고자 할 때에 麻花를 사용하였다.

피부질환에는 麻葉을 제외하고 麻花, 麻根, 麻子가 사용되었다. 麻花는 癩癧, 瘡와 灸瘡에, 麻根은 惡瘡, 腫痛, 麻子是 여러 부위에 생기는 각종 瘡과 癰腫 및 丹毒에 사용되었다. 병의 뿌리가 깊고 위중한 背腫, 腦腫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피부병의 치료는 초기에는 毒邪를 몰아내고 후기에는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麻子是 피부병이 발생한 초기에 風熱이 울체 됐을 때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瘡, 뿌리가 깊은 병과 병의 후기의 단계에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 實證에 毒을 주로 몰아내면서도 후기에 회복시키는 작용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발과 관련된 질환은 麻根을 제외하고 麻花는 눈썹이 빠질 때, 麻葉과 麻子是 머리털이 빠졌을 때 머리를 나게 하고 길게 하였다. 麻子의 경우는 禿瘡으로 머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모발은 한의학의 관점에서 血之餘이며 또 生하고 長하게 하는 것은 陽氣의 작용이므로, 모발을 나고 자라게 할 때 외용으로 사용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大麻는 체내의 血을 직접 보충하여 有餘하게 하기보다는 血分의 陽氣로 작용하여 모발은 나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소변 관련 질환에는 痢疾, 便秘와 血尿, 淋證을 포함한 각종 大小便不通 등이 있었으며 주로 많이 쓰인 곳은 대소변의 불통이다. 麻花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麻葉은 痢疾과 血尿에, 麻根은 血尿와 淋을 포함한 각종 小便不通過 尿床에, 麻子是 大小便不通過에 속하는 便秘와 淋證, 그리고 痢疾을 다스릴 수 있었다. 대변불통을 다스리면서도 痢疾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瀉下 하는 것이 아닌 陽氣를 돌려주고 鬱滯를 해결하여 막히고 새는 것을 함께 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並入麻田中行.”(新編醫學正傳·瘡瘍·方法 丹溪方法凡二十二條·疔腫方法)

437)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 “治丁腫病, 忌見麻勃. 見之即死者方.”(備急千金要方·丁腫第壹論一首證十五條方二十九首灸法一首)

전후음 관련 질환은 모든 부위가 사용되었다. 麻花는 痔漏·痔瘡에, 麻葉은 陰門出에, 麻根은 陰縮에 사용되었으며, 麻子는 여성의 帶下, 陰部の 濕痒, 陰挺과 痔, 截腸病에 사용되었다. 위의 증상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부에 濕과 瘀血이 있는 것이며, 일부 증상들은 장기가 다소 下陷된 것이므로 脾氣下陷을 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용은 濕을 날리고 氣를 들어 올리며 瘀血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관련 질환으로는, 麻根을 제외하고 麻花, 麻葉, 麻子를 각종 학질에 사용하였다. 모두 학질을 오래 앓아 만성화된 경향성을 보이며, 기력 또한 많이 소진되어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麻葉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깨어나면 낫는다는 표현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약간의 반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학질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麻子는 학질뿐만 아니라 瘴氣, 疫癘, 溫毒의 각종 독성 전염병에도 사용되었다.

중 관련 질환에서는 麻子는 뱃속의 각종 기생충을 몰아낼 수 있었고, 麻葉 또한 虻蟲으로 心痛이 있을 때 사용하였다. 기생충은 체내에서 停滯되며 陰濕한 곳을 좋아하기에, 濕을 몰아내고 脾氣를 補하는 작용으로 기생충이 살고있는 胃腸을 활성화시켜 움직여 주면 각종 기생충이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월경, 출산, 임신 등과 관련한 부인과 질환에 사용된 부위는 麻根과 麻子다. 麻根은 催生·易産과 難産·胎衣不下 및 崩漏에 사용되었으며, 麻子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月經不通과 임신 통증과 출산을 위한 산전조리 및 산후 조리와 下乳에도 사용되었다. 月經不通과 산후 조리는 瘀血과 관련이 있었다. 월경을 통하게 하면서 붕루도 치료하고 催生하지만 임신 중 통증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뚫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울체된 것을 통하게 하여 氣血을 순조롭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麻根은 인후가 막히고 붓거나 이물질이 걸렸을 때에도 사용하였고, 麻子는 虛勞, 嘔吐, 消渴, 浮腫, 脚氣 등의 다양한 내과적 질환까지 주치할 수 있었다. 각 질환에서 麻子의 작용을 요약하면,

虛勞는 氣를 보하는 작용, 嘔吐와 脚氣는 降氣하는 작용, 消渴은 熱을 풀고 진액을 적시는 작용, 浮腫은 肺의 通調水道를 도우며 風邪를 몰아내는 작용으로 추정되었다.

이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병증분류별 大麻 각 부위의 활용

효능	麻花	麻葉	麻根	麻子
인지 감각 기관	明耳, 健忘	明耳目		明耳目, 辟穀方
각종 風	頭風, 中風	破傷風	破傷風	頭風, 中風, 擊急
각종 통증	胸腹痛	齒痛, 蟲齒	寒濕手痛, 腰痛	痰牽痛, 骨髓 風毒, 疳蟲蝕齒, 咽痛 등
외상	金瘡	金瘡 打撲傷, 骨折	金瘡, 打撲傷, 骨折	金瘡
해독		蝮蛇螫傷		箭毒, 射罔, 石藥
피부 질환	瘰癧, 瘡, 灸瘡		惡瘡, 腫痛	諸瘡 및 癰腫, 背腫, 腦腫, 丹毒
모발	眉毛脫落	髮生長		眉髮毳生長, 禿瘡
대변 소변 관련		痢疾, 血尿	血尿, 諸淋, 小便不通, 尿床	大小便不通, 諸便秘, 諸淋證, 痢疾
전음 후음 관련	痔漏·痔瘡	陰門出	陰縮	陰部 濕痒, 陰挺, 痔, 截腸病
외감	腹癰瘡母, 溫瘡, 勞瘡, 諸瘡, 瘡無問新久	瘡不止, 積年久瘡, 婦瘡, 熱瘡, 舊暑		瘡氣, 疫癘, 溫毒, 腹癰瘡母, 勞復
충		虻蟲心痛		寸白蟲, 三蟲, 白蟲, 虻蟲
부인			催生, 難産, 胎衣不下, 崩漏	催生, 難産, 胎衣不下, 月經不通, 崩漏, 下乳
기타			咽喉閉塞 腫悶 咽喉哽物	虛勞, 嘔吐, 消渴, 浮腫, 脚氣

2. 麻子の 虛實補瀉 특징

麻子の 적응증인 大便不通은 주요 원인에 따라 虛秘, 氣秘, 風秘, 熱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虛秘뿐만 아니라 津液과 血을 마르게 하는 風熱의 사기를 겸한 實證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麻子로 변비를 치료할 때 老人, 虛人과 産後에 風을 앓아 땀을 흘려서 津液이 소모되고 瀉下를 잘못 사용하여 더욱 秘澀해진 경우에 麻子를 사용하였으며(438), 한편 産後의 경우에 오히려 麻子를 사용하기 곤란하다고도 하였다(439). 이 같은 설명들을 보면 모든 虛證과 實證에 가리지 않고 麻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麻子를 단독으로 혹은 君藥으로 大小便不通에 사용한 경우에서 虛實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虛證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로 虛勞에서 속이 熱이 있는 경우, 虛秘로 大便이 오랫동안 통하지 않는 경우, 産後血暈에 땀이 많은 것과 老人의 腹滿不快나 惡心吐逆의 경우, 飮食勞倦으로 인해 음식 생각이 전혀 없는데 風結과 血結을 겸하는 경우(440), 老人의 淋疾에서 몸에 熱이 심하고 腹滿이 있거나(441), 煩熱이 나면서 소변을 볼 때 음경 속이 아프며 소변량이 적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妊娠의 淋에 小便이 잦고 적으며 곱고 아프면서 手足이 煩疼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일부의 경우에서 風熱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邪氣가 겸하여 있었다. 또한 實證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腹脹煩悶과 瘧疾의 경우, 小便이 赤黃하며 나오지 않는 경우, 淋病에서 澀痛과 煩熱을 겸할 경우, 轉胞(442)와

卒淋으로 소변을 보기 어렵고 아프면서 번열이 나고 답답한 경우, 膨脹하여 숨이 가쁜 경우, 腹滿으로 편안치 못한 경우, 三焦 氣壅으로 흉복이 痞悶하고 裡急後重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443), 기타 脾約證의 경우 등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熱, 滿, 痛 등의 증상을 겸한 경우가 많았다.

종합해 보면 麻子の 사용에서 虛實을 통틀어 熱, 滿, 痛 등의 증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증상 치료의 기전을 살펴보면, 五勞七傷과 八風十二痺의 경우에 맺힌 것[結]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脾胃에 火가 잠복하여 大腸이 건조하거나 風熱로 血이 맺혔을 때 써야 하며 津液不足 脾氣虧損의 경우에는 補해야 하고 해당 처방을 쓰면 안 된다고 하였다(444). 그러므로 虛한 상황에서 쓰고자 할 때는 막힌 것으로 소통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婦人 및 老弱風人의 風熱로 인한 閉結에 元氣가 충실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445), 이 경우도 소통시키는 작용이 지나쳐 원기를 손상시킬 것을 염려한 것이다. 잠복한 伏火風熱으로 大腸이 건조한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에서 腎虛나 失血에는 쓸 수 없다(446)고 하여 伏火風熱을 소통시키거나 精血의 손상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麻子の 虛實補瀉法 운용에서 허증에 보하거나 실증에 사하는 작용에 각각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結滯된 것을 소통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實證과 관련된 증상들을 치료하며 동시에 정기가 虛한 환자에게도 邪氣 등이 結滯되어 있는 상황을 전체로 하

438)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又老人, 虛人, 風人津液少, 大便秘. 經云: 澀者滑之. 故用胡麻, 杏仁, 麻子仁, 阿膠之類是也. 今人學不師古, 妄意斟酌, 每至大便秘燥, 卽以駛藥蕩滌之, 旣走津液, 氣血, 大便隨手愈更秘澀, 兼生它病.”(婦人大全良方·衆疾門·婦人大便不通方論第六·大麻仁圓)

439)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産後汗多則大便秘, 難於用藥”(本草綱目·穀之一·大麻·麻仁)

440)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潤腸丸. 治飮食勞倦, 大便秘澀, 或乾燥, 閉塞不通, 全不思食, 及風結·血結, 皆能閉塞也. 潤燥和血疎風, 自然通利也.”(脾胃論·脾胃損在調飮食適寒溫)

441)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老人五淋, 身熱腹滿.”(兩無神編·下部·諸淋門)

442)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胞轉小便不得方”(備急千金要方·胞囊論第三)

443)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三焦氣壅, 心腹痞悶, 六腑風熱, 大便不通, 津液內枯, 大腸乾澀.”(增注類證活人書·雜方·神功丸)

444)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脾胃伏火, 大腸乾燥, 或風熱血結, 宜用此丸通之. 若結在直腸, 宜用猪膽汁導之. 蓋腎主五液, 開竅於二陰, 若津液滋潤, 則大便通調. 若津液不足, 脾氣虧損, 必當培補, 乃忌此藥.”(景岳全書·春集·外科鈴古方·外科·潤腸丸)

445)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痔漏腸風, 風熱閉結, 元氣充實者.”(校注婦人良方·衆疾門·婦人老弱風人便秘戒用利藥方論第七·附治驗·搜風順氣丸)

446) 한의학교전DB. 2016 [상동]: “治伏火風熱, 大腸乾燥. 若因失血, 或因腎虛, 當滋腎水, 最忌此丸.”(校注婦人良方·衆疾門·婦人大便不通方論第六·附方·潤腸丸)

여 정기의 손상에 조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 結滯를 소통시키는 麻子の 작용이 일반적으로 강한 瀉下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麻子를 사용하는 脾約證의 명칭에서도 ‘約’은 묶여 있다는 뜻이 있으므로⁴⁴⁷⁾ 結滯로 인해 진액이 산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麻子이 緩脾而潤燥의 작용을 하며 오히려 芍藥이 津液을 수렴한다는 설명⁴⁴⁸⁾에서도 麻子가 津液을 직접 보하는 것이 아니라 脾氣가 막힌 것을 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麻子뿐만 아니라 여러 본초서에 나오는 大麻의 각 부위별 효능을 살펴본 결과, 麻花와 麻葉이 辛味를 가지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독성을 없애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虛證을 치료하고 氣血을 소통하여 모발을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麻根의 경우는 瘀血을 없애는 동시에 대하와 붕루 등을 치료하여 氣血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大麻의 각 부위를 통틀어 補瀉 각각에 치우치는 작용보다는 氣血을 소통시키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여 여러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3. 麻子の 禁忌

앞서 밝혀낸 기전 및 적응증이 禁忌와도 부합하는지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체의 風 및 大風으로 인한 腳弱風痺에 금기한 경우를 분석해보면, 일체의 風 및 大風으로 인한 腳弱風痺의 적응증이 大麻子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松脂와 大麻子는 서로 相殺, 相惡, 相畏 등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꺼리는 내용을 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松脂는 상당히 燥한 약물이며, 반면 葱藥과 生地黃은 腸胃에 진액을 넣어준다. 물론 麻子仁도 진액을 滋潤할 수 있으나 麻子仁의 滋潤은 氣滯를 풀고 行氣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津液을 직접 채워주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다르기에, 松脂를 복용

하여 燥한데에 麻子로 行氣 한다면 진액이 더욱 고갈될 염려가 있기에 금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 금기인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으므로 虛證 보다는 實證으로 볼 수 있고, 積雪草는 강한 清熱藥이므로⁴⁴⁹⁾ 積雪草를 썼다는 점에서 本證의 극심한 통증은 실증성의 熱鬱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월경이 나올 때 통증이 허리까지 몹시 아프다는 것에서 血이 모자라게 되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麻子는 冷症에도 사용하므로 清熱효과 자체는 강하지 않으면서, 血滯를 푸는 작용이 있으므로 血滯를 풀어 자궁의 血을 行하게 하게 되면 국소적으로는 血이 더욱 고갈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부병에서 금기인 경우에는, 麻子疔과 丁腫病은 결국 丁瘡인 것으로, 형태는 작으나 뿌리가 깊으면서 굳고 단단하여 못처럼 생긴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丁瘡의 병인 및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거나 깨끗하지 않았거나, 외부의 風邪나 火毒의 감수하였거나, 다쳐서 毒氣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데, 급작스럽게 발병하고 변화도 빠르다. 만약 잘못 다스렸거나 熱毒이 지나치게 성하면 쉽게 走黃⁴⁵⁰⁾이 된다. 內治는 清熱解毒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¹⁾. 발병 원인만 보아서는 丁瘡에 大麻를 써도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丁瘡에 熱毒이 지나치게 성하면 走黃이 되고 內治는 清熱解毒해야 한다는 것에서, 麻子나 麻勃을 사용할 경우 血이 소통되면서 邪氣가 血分으로 들어오게 되어 丁瘡이 더 심해지기 禁忌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종합하면 麻子를 禁忌하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더

449) 氣味가 苦寒하며 大熱, 身熱, 暴熱, 腹內熱結 따위를 주치하므로 강한 清熱藥이다.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氣味. 苦, 寒, 無毒. 主治. 大熱, 惡瘡癰疽, 浸淫赤爛, 皮膚赤, 身熱. …主暴熱, 小兒寒熱, 腹內熱結.”(本草綱目·草之三 芳草類五十六種·積雪草)

450) 疔瘡走黃란 疔毒이 빠르게 血分으로 들어가 퍼져 흩어져 온몸에 드센 열이 오르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살갗의 빛깔이 누렇게 뜨는 병증이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77.

45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9.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76.

447) youl. 2003. [상동] : “故曰脾約. 約者, 約束之義.”(湯液本草·草部·麻仁)

448) 한의학고전DB. 2016 [상동] : “麻子·杏仁之甘, 緩脾而潤燥. 津液不足, 以酸收之, 芍藥之酸, 以斂津液”(註解傷寒論·仲景全書第十五·辨陽明脈證并治第八)

육 소통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4.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는 효능과 비교

대마의 고유 유효성분인 카나비노이드는 광범위한 약리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의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리학적 기전을 검토하면 카나비노이드가 결합하는 수용체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중추신경에 많이 존재하여 기억, 기분, 식욕, 통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2형은 말단의 면역체계에 많이 존재하여 면역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⁵²⁾.

이 기전을 바탕으로 카나비노이드가 갖는 임상적 효과는 항간질, 항경련, 항구토, 항염증, 항불안 및 항우울, 항종양, 면역조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질환으로는 간질,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각종 통증, 다발성 경화증, 녹내장 및 악성 신경아교종, 알코올 및 마리화나 중독 등이 있다⁴⁵³⁾.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은 통증을 수반하는 시력 상실, 편마비, 감각저하, 감각이상, 현훈, 경련, 안면마비, 비뇨기 또는 대변 괄약근 기능 장애 등⁴⁵⁴⁾이 있으며, 신경아교종의 증상은 두통, 오심 구토, 인지 변화, 보행 불균형, 편마비, 실어증, 시야 결손, 발작 등⁴⁵⁵⁾이 있다. 위의 질환들의 병소와 증상을 종합하여 볼 때 대마의 적응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효능과 전통의학에서

사용한 대마의 효능이 서로 연관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위별 카나비노이드에 함량에 따른 효능의 연관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카나비노이드의 부위별 함유량은 麻花에서 약 4~6%⁴⁵⁶⁾, 麻葉에서 약 2%, 麻根과 麻子에는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초서들에서 麻花가 有毒하여 환각을 보게 하고[令人見鬼狂走], 麻葉도 有毒하고 사람을 해칠 수 있다[葉上有毒, 食之殺人]고 언급한 사실과 부합하였다.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는 효능과 연관성은 麻花는 높은 편이나 麻葉은 연관성이 낮으며, 오히려 麻子가 연관성이 높았다.

중추 및 말초 신경의 관점에서 사용한 부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麻花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補心하여 健忘을 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麻葉은 뱀에게 물린 경우에 많이 사용했는데, 살무사의 독은 출혈독과 신경독의 혼합으로 통증과 腫脹 및 호흡곤란을 유발한다⁴⁵⁷⁾. 麻子가 주치하는 화살독, 射罔도 신경독으로 작용하여 심폐의 근이완을 유발하여 죽게 한다. 따라서 신경에 작용하여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에 대해서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麻根의 효능은 카나비노이드와 관계가 적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麻子도 카나비노이드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추 및 말초신경계 질환인 中風, 경련 및 각종 통증 질환에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전통의학에서 카나비노이드가 풍부한 麻花 및 麻葉보다 麻子の 적응증이 넓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천연물을 사용하는 과거 상황상 마약성분의 함량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기에 麻花 및 麻葉의 사용을 꺼리는 대신 麻子를 사용했기 때문이거나, 麻子에 있는 미량의 카나비노이드로도 효과를 볼 수 있거나, 대마의 효과를 내는 성분이 카나비노이드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52) Chayasirisobhon S. Mechanisms of Action and Pharmacokinetics of Cannabis. Perm J. 2020 . 25. pp.1-3.

453) 苑佳玉 外 3人 共譯. 大麻의 成癮性 和 潛在의 藥用價値. 中國藥物依賴性雜誌. 2017. 26(5). pp.330-336.

邢俊波 外 3人 共譯. 大麻花葉本草考證. 綠色科技. 2020. (7). p.92.

王秋月, 盧芳, 劉樹民. 大麻及大麻素藥用價値의 現代研究進展. 中藥藥理與臨床. 2020. 36(4). pp.222-227.

454) Oh J, Vidal-Jordana A, Montalban X. Multiple sclerosis: clinical aspects. Curr Opin Neurol. 2018 . 31(6). p.753.

455) Omuro A, DeAngelis LM. Glioblastoma and other malignant gliomas: a clinical review. JAMA. 2013. 310(17). p.1843.

456) 꽃의 함유량에서 수분시 감소량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45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90-191.

IV. 結論

본 연구는 大麻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다음 내용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문헌에서 꽃 혹은 이삭을 의미하는 ‘麻花, 麻勃, 麻蕒’이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였다. 위 세 가지는 형태학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초의 최상부라는 거의 같은 위치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채취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얻어지는 수확물은 꽃의 독성이 상당 부분 줄어든, 수분된 이삭일 확률이 높다.
2. 大麻를 사용하는 효능과 주치를 범주화하여 모으면 다음과 같다. 인지 및 감각기관을 밝게 하는 효과, 각종 風證과 中風, 각종 통증 및 외상, 해독과 마취, 피부질환, 모발의 生長, 대소변 관련 질환으로 막힌 것과 새는 것, 전후음 관련 질환, 감염병 관련 질환으로는 만성화된 학질, 기생충 퇴치, 월경·출산·임신 등의 부인과 질환 등이 있었다.
3. 大麻의 전체 작용은 막힌 結滯를 통하게 하고 氣血을 운행시켜 결과적으로 風熱의 邪氣를 몰아내면서 瘀血 및 氣滯 등을 다스리는 것이다. 단순한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氣血의 운행을 순조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막히거나 체한 증상뿐만 아니라 밖으로 새어나가는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麻子の 사용에서 虛實補瀉의 특징을 살펴보면, 實證이라 하더라도 급하게 結滯가 생긴 경우에 사용하며 虛證에서도 鬱滯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虛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작용으로 인하여 정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麻子の 사용을 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는 카나비노이드의 효능·주치와 전통의학에서 사용하는 大麻의 효능·주치는 유사하여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마자의 부위별 카나비노이드 함유량과 효능을

비교해본 결과, 카나비노이드가 가장 많은 꽃은 중추신경에 대한 작용이 특징적이었다. 잎은 통증에 사용하였는데 특히 뱀에게 물린 경우에 많이 사용하였다. 씨는 카나비노이드의 함량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화살독을 해독하거나 中風 및 각종 통증 질환에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약리학 관점에서 麻根 및 麻子에는 카나비노이드가 적게 함유되어 麻根 및 麻子の 효능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麻根 및 麻子の 효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량된 다양한 大麻의 품종에 따라 그 활용 분야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大麻의 각 부분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그 적응증과 기전을 고찰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大麻의 효능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2. 新文豐出版公司 編. 김창민 外譯. 完譯 中藥大辭典.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8.
3. 郭麗 外 3人 共譯. 論炙甘草湯中麻仁. 四川中醫. 2015. 33(6).
4. 譚歌, 呂翠霞. 炙甘草湯“麻仁”之我見.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18. 34(2).
<https://doi.org/10.13463/j.cnki.cczyy.2018.02.012>
5. 李秋實, 孟瑩, 陳士林. 藥用大麻種質資源分類與研究策略. 中國中藥雜誌. 2019. 44(20).
<https://doi.org/10.19540/j.cnki.cjcmm.20190916.101>

6. 白雲俊 外 3人 共譯. 藥用大麻起源及其早期傳播. 中草藥. 2019. 50(20).
<https://doi.org/10.7501/j.issn.0253-2670.2019.20.033>
7. 史仁傑. 脾約證及麻仁丸考析. 江蘇中醫藥. 2008. 40(5).
<https://doi.org/CNKI:SUN:JSZY.0.2008-05-011>.
8. 謝惠素. 炙甘草湯方“麻仁”析. 遼寧中醫雜誌. 2011. 38(11).
<https://doi.org/10.13192/j.ljtc.2011.11.86.xiehs.063>
9. 常麗 外 8人 共譯. 基於專利分析的大麻研發態勢及技術構成. 生物技術通報. 2018. 34(12).
<https://doi.org/10.13560/j.cnki.biotech.bull.1985.2018-0663>
10. 손호용, 김문년, 김영민. 대마 생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생명과학회지 2021. 31(7).
<https://doi.org/10.5352/JLS.2021.31.7.677>
11. 申永和. 麻子仁丸應用四則. 中國民間療法. 2002. 10(10).
<https://doi.org/10.19621/j.cnki.11-3555/r.2002.10.065>
12. 於宛彤 外 5人 共譯. 藥用大麻活性成分產品開發及育種研究進展. 中國實驗方劑學雜誌. 2023. 29(3).
<https://doi.org/10.13422/j.cnki.syfjx.2022.0556>
13. 王秋月, 盧芳, 劉樹民. 大麻及大麻素藥用價值的現代研究進展. 中藥藥理與臨床. 2020. 36(4).
<https://doi.org/10.13412/j.cnki.zyyl.2020.04.032>
14. 苑佳玉 外 3人 共譯. 大麻的成癮性和潛在的藥用價值. 中國藥物依賴性雜誌. 2017. 26(5).
<https://doi.org/10.13936/j.cnki.cjdd1992.2017.05.002>
15. 유요안, 전용일, 배정생. 주요 국가의 대마합법화 동향과 국내 시사점. 東北亞法研究. 2022. 15(3).
<https://doi.org/10.19035/nal.2022.15.3.23>
16. 張喬會 外 3人 共譯. 火麻仁研究概述. 湖北農業科學. 2019. 58(21).
<https://doi.org/10.14088/j.cnki.issn0439-8114.2019.21.002>
17. 張明發 外 3人 共譯. 火麻仁的消化系統藥理研究. 藥學實踐雜誌. 1997. 15(5).
<https://doi.org/CNKI:SUN:YXSJ.0.1997-05-003>.
18. 張明發 外 3人 共譯. 火麻仁的鎮痛抗炎抗血栓形成作用研究. 基層中藥雜誌. 1999. 13(1).
<https://doi.org/10.13728/j.1673-6427.1999.01.01>
19. 張世鵬 外 6人 共譯. 火麻仁化學成分研究. 沈陽藥科大學學報. 2023. 40(4).
<https://doi.org/10.14066/j.cnki.cn21-1349/r.2021.0890>
20. 張漢文 外 3人 共譯. 基於中藥配伍的火麻仁藥理作用研究進展. 中國醫院藥學雜誌. 2022. 42(6).
<https://doi.org/10.13286/j.1001-5213.2022.06.16>.
21. 周路紅, 王蓓, 張曉薇. 繼承與創新:麻仁潤腸茶的研制.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22. 20(19).
<https://doi.org/10.3969/j.issn.1672-2779.2022.19.032>
22. 朱文翔 外 8人 共譯. 芻議太陽陽明脾約及麻子仁丸三者的聯系. 中華中醫藥雜誌. 2017.32(9).
<https://doi.org/CNKI:SUN:BXYY.0.2017-09-016>.
23. 朱文翔 外 6人 共譯. 麻子仁丸病機及方證探析. 環球中醫藥. 2017. 10(8).
<https://doi.org/10.3969/j.issn.1674-1749.2017.08.032>
24. 陳修源. 火麻仁無補虛之功. 江西中醫藥. 1988. (4).
<https://doi.org/CNKI:SUN:JXZY.0.1988-0>

- 4-036.
25. 陈锐张平. 炙甘草汤中麻仁的研究进展. 中國社區醫師. 2004. 6(7).
<https://doi.org/CNKI:SUN:ZGSQ.0.2004-07-114>.
26. 肖相如. 脾約不是麻子仁丸證. 河南中醫. 2009. 29(11).
<https://doi.org/10.16367/j.issn.1003-5028.2009.11.004>
27. 祝慶明 外 5人 共譯. 《神農本草經》藥物解讀-麻子.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7. 15(23).
<https://doi.org/10.3969/j.issn.1672-2779.2017.23.033>
28. 한경선, 이명중, 김호준. 의료용 대마의 이해 및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대마의 치료적, 학술적 필요성 제고. 한방비만학회지. 2016. 16(2).
<https://doi.org/10.15429/jkomor.2016.16.2.124>
29. 邢俊波 外 3人 共譯. 大麻花葉本草考證. 綠色科技. 2020. (7).
<https://doi.org/10.16663/j.cnki.lskj.2020.07.031>
30. Carni Lipson Feder. et al. Fertilization Following Pollination Predominantly Decreases Phytocannabinoids Accumulation and Alters the Accumulation of Terpenoids in Cannabis Inflorescences. *Frontiers in Plant Science*. 2021. vol 12.
<https://doi.org/10.3389/fpls.2021.753847>
31. Chayasirisobhon S. Mechanisms of Action and Pharmacokinetics of Cannabis. *Perm J*. 2020 . 25.
<https://doi.org/10.7812/TPP/19.200>
32. Jin D. et al. Identification of Chemotypic Markers in Three Chemotype Categories of Cannabis Using Secondary Metabolites Profiled in Inflorescences, Leaves, Stem Bark, and Roots. *Frontier in Plant Science*. 2021 .12.
<https://doi.org/10.3389/fpls.2021.699530>
33. Krüger M, van Eeden T, Beswa D. Cannabis sativa Cannabinoids as Functional Ingredients in Snack Foods—Historical and Developmental Aspects. *Plants*. 2022. 11(23).
<https://doi.org/10.3390/plants11233330>
34. McPartland JM, Small E. A classification of endangered high-THC cannabis (*Cannabis sativa* subsp. *indica*) domesticates and their wild relatives. *PhytoKeys*. 2020. 144.
<https://doi.org/10.3897/phytokeys.144.46700>
35. Nandakumara D. Sarma. et al. Cannabis Inflorescence for Medical Purposes: USP Considerations for Quality Attribute. *Journal Of Natural Products*. 2020. 83.
<https://dx.doi.org/10.1021/acs.jnatprod.9b01200>
36. Natasha R. Ryz, David J. Remillard, and Ethan B. Russo. Cannabis Roots: A Traditional Therapy with Future Potential for Treating Inflammation and Pain. *Cannabis and Cannabinoid Research*. Dec 2017.
<http://doi.org/10.1089/can.2017.0028>
37. Oh J, Vidal-Jordana A, Montalban X. Multiple sclerosis: clinical aspects. *Curr Opin Neurol*. 2018. 31(6).
<https://doi.org/10.1097/WCO.00000000000000622>
38. Omuro A, DeAngelis LM. Glioblastoma and other malignant gliomas: a clinical review. *JAMA*. 2013. 310(17).
<https://doi.org/10.1001/jama.2013.280319>
39. Upton, R. et al. Cannabis inflorescence:

- cannabis spp.; standards of identity,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California.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 2014.
40. Yang Y, Lewis MM, Bello AM, Wasilewski E, Clarke HA, Kotra LP. Cannabis sativa (Hemp) Seeds, Δ 9-Tetrahydrocannabinol, and Potential Overdose. Cannabis Cannabinoid Res. 2017. 2(1).
<https://doi.org/10.1089/can.2017.0040>
41. A+ 醫學百科 홈페이지. 2006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www.a-hospital.com/w>
42. 위키백과. 2001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s://ko.wikipedia.org/wiki>
<https://en.wikipedia.org/wiki>
43. 百度百科(바이두 백과사전). 2000 [cited 1 May. 2023] :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